

| | | | | | |
|---|--|---|--|---|---|
| <p>02 대학평의회 3대 선출 -의장에 최기홍 교수, 부의장에 유부상 팀장</p> | <p>03 "전공수업 이해도가 낮아" -적성·전공 불일치, 전공에 대한 흥미도와 이해도 낮아</p> | <p>04 대학생, 우울증에 '풍당' -우울증에 시달리는 대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은?</p> | <p>05 한시의 그윽한 아름다움 -낯설게만 느꼈던 한시, 그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에 대하여</p> | <p>07 대학가의 낭만, 캠퍼스커플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역시 사랑이죠."</p> | <p>08 장인이 '한뼉한뼉' 빛은 전통주 -계절과 온맛에 따라 다른 우리의 고유한 술 이야기</p> |
|---|--|---|--|---|---|

삼학송

인연, 신기하고 황홀한 인생의 법칙

지금은 '봄'의 한가운데. 이번 호 기획면 주제는 '캠퍼스 커플'이다. 이런 주제는 자칫하면 가십으로 흐를 수 있어 설불리 도전하기 힘든 내용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캠퍼스 커플 자체는 대학이란 단어의 범위 내에서 빼놓으면 아쉬운 '재료'다.

어느 날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블로그를 엿보았다. 그 때 공주교대 과학관 캠퍼스 앞에서 담임선생님과 부인이 포즈를 취한 사진이 포스팅된 걸 보았던 기억이 난다. 지금은 두 아이를 두고 사는 부부인 이 커플도 알고 보니 대학시절 캠퍼스 커플이었던 것이다.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이 한 때는 사진 속 교정을 거닐던 파릇한 캠퍼스 커플이었던 것을 상상하니 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당시에 자신들이 평생을 약속할 인연이라 상상해 본 적이 있었을까.

오는 6월에 박주영 선수의 결혼식이 있다. 그의 피아세와는 같은 대학 1년 선배로 만나 6년간 사랑을 키워왔다고 한다. 이런 예는 주변에서 의외로 꽤 찾을 수 있다. 안철수-김미경 카이스트 교수 커플은 또 어떤가. 그들은 둘 다 의과대학을 나와 분업이 아닌 분야에서 성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도 비슷하다.

이렇게 주변을 관찰하면 캠퍼스 커플로 시작해 결혼으로 이어진 부부가 의외로 많다. 캠퍼스 커플이란 단어가 왜 많은 사람들을 뜻뜻한 감상에 젖게 할까. 순수한 꿈과 열정을 가진 대학생들이 캠퍼스란 테두리 안에서 만나 서로에게 지적인 자극을 주고 삶의 방향을 의논해가는 모습이 그 자체로 매우 아름답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케이스를 하나씩 접하다 보면 세상일은 참 모호 일어난 생각이 드는 동시에 주위에 있는 많은 인연들이 되돌아보게 된다.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먼 미래엔 어떤 모습으로 내 옆에 있게 될까.

누군가는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다. 연인관계든, 사제관계든, 교우관계든 우리 주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오후엔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와 커플이라도 한 잔 하는 건 어떨까.

이상이 편집국장

총학생회 첫 학생요구안 완료

학생 요구 수렴을 위한 커뮤니티 개설 진행 중

지난 4월 12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를 통해 학생요구안이 최종 결정되었다. 결정된 학생요구안은 22일 학생지원팀에 전달되었다. 학생요구안의 내용은 ▲적립금 운용 계획 발표 ▲수업 환경 개선 ▲U 캠퍼스화 추진 ▲학생복지 강화 ▲학생회실 리모델링 ▲등록금 금액 단대별 차등 인상 ▲학생 불만사항 접수창구 일원화 및 신속한 처리 ▲강의 평가 공개 ▲수용인원 증가와 분반 활용을 통한 핵심교양 및 교양과목 증설 등이다. 대체적으로 올해 초 등록금 협의과정에서 요구했던 학생요구안과 동일하다.



▲4월 12일, 총학생회실에서 학생요구안 결정과 대동제 날짜 조정을 위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각 단대별로도 학생요구안이 확정되었다. ▲예술대 학생요구안은 △무용과 · 회화과 학생회실 마련 △교육지원금으로 재료값 지원 △회화과 자체 지원 △복수전공 등록금 논의 등이 주된 내용이다. ▲사회과학대에서는 과목 개설 요일 분산 등을 요구했다. ▲공과대학은 △휴게실 리모델링과 휴게실 물품 교체 △공과관 정수기 설치 △공과관 ATM기 설치 △CCTV 설치 등을 내세웠다. ▲야간총학생회는 △점등시간 · 매점 이용시간 · 학술정보관 이용 시간 연장 △야간 스쿨버스 운행 등을 요구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에서는 △졸업 사진 찍기, 학사모 대여 등 졸업 지원 활동 적극적 홍보 △졸준위실 오피스 수리 등을 요구했다.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학생증 개선을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인문대 학생요구안은 총학생회에서 제출하는 학생요구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따로 구성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 요구안들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학생 임원이 아닌 나머지 학생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초 학생요구안 결의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태성(정통 4) 총

학생회장은 "요구안을 처음 만드는 시점부터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효율성도 떨어지게 된다. 차후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커뮤니티 개설 및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커뮤니티 개설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종요구안이 학생지원팀의 심사를 거치는 중이다. 만약 학생지원팀 측에서 거절하는 요구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시 요구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적인 요구안에 대한 여론 수렴은 학생지원팀 측에서 회신이 와야 제대로 된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정확한 회신일자는 아직 모르는 상태다."고 답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학생 여론 수렴은 학생지원팀의 직접적인 답변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 수렴 방법과 학생요구안 홍보에 관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동제에 등록금 동결, 학생요구안 실현과 관련된 홍보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행사는 대동제 무대 행사 중 일부로 꾸며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 지난 4월 27일 청의관 앞에서 특특(talk talk) 야간총학생회가 부스를 세워 학내 시설에 관한 설문조사 를 진행했다.

취재부

대의원 총회에서 학생회비 모두 인준돼

지난달 14일 열린 상반기 1차 대의원총회에서 모든 인준 및 인준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상반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방중감사결과 보고, 상반기 각 단위 조지도 심의, 각 단위 예산인준이 이루어졌다.

1학기 공개기금 및 단대 예산계획안 모두 인준 ▲감사위원회는 135명 중 111명의 표를 얻어 인준 받았고, ▲총대의원회는 대의원총회와 무료전자 전송 등으로 6백1십8만6천700원을 인준 받았다. ▲총학생회는 대동제와 농촌연대활동 등의 사업으로 2천9백6백7십만850원으로 책정되어 124명 중 122표를 얻어 인준됐다. ▲야간총학생회는 야간학우들과의 만남, 계절라 야식배부, 일상운영비가 포함된 2백7십3만원을 인준받

았다.128명 중 97명 찬성) ▲학생복지위원회는 시험기간 야식배부, 시네마테이, 급연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책정된 3백64십4만원의 예산을 인준 받았다.121명 중 105명 찬성) ▲졸업준비위원회에서는 대기업면접가이드북과 앨범촬영을 위한 음료 및 다과류 제공 등으로 6백7십8만원을 책정해 128표 중 94표를 얻어 인준 받았다.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박람회 및 미화콘서트 사업으로 126명 중 80명의 찬성표를 얻어 2백36만3천원을 인준 받았다.

▲인문대는 인대체전과 시험기간 간식배부, 셀프인쇄소 등으로 5백1십5만2천원(125명 중 78명 찬성) ▲사회과학대는 야식 · 증식사업과 사대체전, 사업공청회 등의 사업으로 3백6

7만5천900원(125명 중 83명 찬성) ▲예술대는 야식지원과 예대 프리마켓, 예대 주점 등으로 5백8십2만원(127명 중 110명 찬성) ▲공과대는 공대체전과 계절라성 이벤트 사업으로 3백5십9만1백원(129명 중 113명 찬성)을 인준 받았다.

2010 하반기 정기감사결과 보고 방중기간에 진행된 2학기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결과가 보고됐다. 사회과학대 학생회와 예술대 학생회는 회계감사분야에서 각각 경고 3회를 받았다. 이에 예술대는 단위예산의 1%인 3천590원을, 사회과학대는 3천600원을 환불했다. 총학생회는 회계감사분야에 경고 2회, 주의 1회를 받았고 졸업준비위원회와 인문대 학생회는 각각 경고 2회



▲ 지난달 14일 열린 상반기 1차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의결안에 대해 가수를 하고 있다.

를 받았다. 또한 공과대는 경고 1회, 동아리연합회는 경고 1회, 주의 1회를 받았다.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에는 특별히 조치된 내용이 없다.

이예진기자 edory11@hansung.ac.kr

호사진품

공모전



2010년 수상작

기간 : 5월 2일(월) 5월 ~ 19일(목) 오후 6시까지

대상 : 한성대학교 전 구성원 (학부, 대학원, 교수 및 직원)

주제 : 자유 (주제의 제약이 없음)

제출형식 : 8×10크기로 인화해 제출

제출장소 : 학생회관 제1별관(기업은행 맞은편 건물) 2층 한성대신문사

발표 : 한성대신문 452호(6월 7일 발행)

상금 : 최우수상(1명)- 상장 및 상금 40만원
佳作(1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문의 : 한성대신문사 02) 760-4186
편집국장 010-7124-5831 / press@hansung.ac.kr

※ 1인당 3점의 작품에 한해 받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겹봉에 성명/소속/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학평의원회 3대 의장 · 부의장 선출

의장에 최기흥 교수, 부의장에 유부상 팀장

지난 달 18일 미래관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우리 학교 대학평의원회 3대 의장에 최기흥(기계시스템공학부)교수협의회장, 부의장에 유부상(정보화팀)팀장이 위촉장을 받았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의기구이다. 지난 2003년 시행된 개정사립학교법에 포함된 것으로 이사회 의결 사항 등 모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시행령에서 규정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학내 타 위원회 보다 상위 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에 자문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한다. 3월에 한 번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임시회의는 연 6회 정도 진행된다.

3기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기흥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앞으로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에 도래할 큰 변화에 중 · 장기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조한 출생률로 인한 인적자원의 감소

로 대학 입학자가 점차 줄고 있으며 경쟁률이 떨어지는 대학부터 천천히 도태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기흥 의장은 "우리 대학에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의견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학평의원회에서도 교수, 직원, 학생 세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 및 복지에 관한 학생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기흥 의장은 교수와 직원, 학생 모두에게 복지문제는 중요한 이슈지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기흥 의장은 "얼마 전 학생 식당 재계약때문에 평의원들이 만의 의견을 냈다. 교수나 직원들은 건강을 생각하는 나이다보니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대표는 학생들은 질보다 양을 우선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조금씩 상충되는 데 이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내용은 교수 · 직원 간 커뮤니티인 인트라넷에



▲ 4월 18일, 총정실에서 최기흥 교수가 대학평의원회 의장 위촉장을 받고 있다.

게시된 게시판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그 내용에 대해 거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2007년 처음 설립된 우리 학교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사가 5:3:3: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 대표가 실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라 보기 힘들다. 논의 자료가 전문적인 내용이 많고 학생대표의 임기도 짧기 때문이다. 올해 임명된 학생대표는 김태성(정보통신공학부)이다.

김태성 총학생회장은 "1년 전 예산을 정리하다 보면 궁금한 점이 있는데 물어보면 답변조차 모르는 내용일 때가 있다. 그쪽은 다 학교 측이나 학생들에게 다소 불리한 구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대표로서 예 · 결산 심의 등 등목급과 관련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회의 자리에서만 자료를 공개하고 다시 학교 측이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

히 검토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최기흥 의장은 "회의록도 작성해 게시판에 올리고 있고 학생대표도 참석하므로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회의에서 정보를 얻고 평의원회 간사에게 회의록을 전달받아 학생회 자체적으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교육의 주체가 전도되지 않는 수준에서 언제라도 심의 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간추린소식

제5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대회 개최해

개인의 발표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무대인 한성인 프레젠테이션대회가 열린다.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이 대회는 올해 5회째로 학생들의 사고력 확장과 문제해결능력 및 발표능력향상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대회는 제출된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통해 예심을 진행하고 그 중 13명을 선정하여 5월 19일 DLC에서 청중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는 것으로 본선을 진행한다. 시상은 총장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최우수상 1명에 상금 50만원, 우수상 4명에게 20만원, 가작 8명에게 상금 10만원이 지급된다. 김은혜(사고와 표현)연구원은 "큰 대회이지만 글쓰기 대회와 달리 발표를 해야 하는 부담감에 참여자가 적다.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지정주제 및 자세한 내용은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회 낙산가요제 열려

올해 낙산가요제가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낙산가요제는 올해 36회를 맞이하는 우리학교 방송국 HBS의 정기행사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외행사이다. 예선은 오는 5월 7일부터 8일까지 미래관 2층 HBS에서 진행되고, 그 중 10팀이 선발되어 본선무대에 오른다. 외부 작곡가와 작사가가 심사위원으로 초청되며 심사기준은 음정, 박자, 곡구성력, 가창력, 무대매너 등이다. 장르의 제한은 없으며 창작곡을 원칙으로 한다.

김다은(기계 3실)무곡장은 "창작곡이라는 점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대학생활 중 한번 해볼 만한 멋진 경험이 될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한다. 주저하지 말고 많은 학우 분들이 문을 두드려주셨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6일까지이며 신청서, MR, 악보 3매를 가지고 HBS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는 HBS 홈페이지(http://press.hansung.ac.kr/hbs)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6회 영어 스피치대회 열려

오는 20일 영자신문사가 주관하고 프레젠테이션이 후원하는 제6회 한성교내 영어 스피치대회가 열린다. 참가 접수는 15일까지이며 우리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휴학생도 접수 가능해진다.

영어 스피치대회는 영어로 자기를 표현하는 언어구사 능력을 시험하는 대회이다. 올해는 학생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영어권 국가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참가 유형 구분을 없애고 상금을 증액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참가지원서와 A4 2장 분량의 스피치 원고를 학생회관 제1별관 영자신문사로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pianaly@hansung.ac.kr)로 지원할 수도 있다. 다른 영어 스피치 대회에 참가했던 원고를 중복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본선대회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영어 스피치 대회 기획의도에 대해 이민영(영어영문 3) 편집국장은 "나중에 있을 큰 무대를 대비하기 위해 경험을 쌓는 능력 표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영어 말하기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성국제어음학교 재학생 참가자 모집해

한성국제어음학교를 주관하는 대외협력팀에서 이 행사의 재학생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성국제어음학교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영어권 교류대학 학생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언어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전에는 한국과 관련된 주제를 갖고 영어로 수업하는 강의를 들은 후, 오후에는 고궁방문, 태권도 체험 등의 한국 문화 체험을 하는 일정으로 약 4주간 진행된다.

재학생 참가자는 4주간 모든 일정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진행 도우미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5월 13일 이전에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참가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 우촌관 3층 대외협력팀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동정란

신재홍(교육대학원)교수 신 교수는 지난 3월 저서 『교육사회학』을 도서출판 동문사에서 출간했다.

안드로이드 어플로 만나는 스마트 캠퍼스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 사용이라면 누구나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한성대학교 어플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마켓에 업로드 되어있는 '한성대학교'와 'HANSUNG INSIDE' 두 어플은 교내 소식과 열람실 좌석 정보 등 여러 가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성대학교' 어플의 ▲교내정보 메뉴에서는 한성대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술정보 메뉴에서는 학술정보관의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열람실 메뉴에서는

미래관, 우촌관에 있는 열람실의 잔여좌석수를 확인할 수 있다. ▲배달식당 메뉴에서는 음식 배달 주문 전화를 걸 수 있다. '한성대학교'에만 있는 ▲학점제산 메뉴에서는 수업시수와 학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학점을 계산해준다. 이 외에도 우리학교 어플은 교내 시설과 학교 기관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성대학교'를 제작한 김용완(멀티 4)학생은 "다른 학교에는 학생이 아닌 학교에서 의뢰한 외부업체가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우리학교

에는 관련 어플이 없어서 직접 만들어 봤다"고 제작 계기를 밝혔다. '한성대학교' 어플은 지난 2월 말 출시된 이후 벌써 다운로드 1천 건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완 학생은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서 기분이 좋다. 사용하면서 불편한 것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메일이나 댓글을 통해 검토해보고 수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성대 어플인 'HANSUNG INSIDE'도 '한성대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HANSUNG INSIDE'를 제작한 엄두성(컴공 2)학생과 윤경수(컴공 2)학생은 "교과 과정 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HANSUNG INSIDE'의 아이폰 버전 추가에 대해서는 "아이폰용 어플을 제작하려면 매킨토시 컴퓨터가 필요한데 학교 지원도 부족하고 개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곤란함을 밝혔다. 한편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어플을 개발해서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이다. 부족한 어플이지만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학생들을 만족시켜겠다"고 덧붙였다.

오지영 기자 guiyomee@hansung.ac.kr

WIFI · 3G 무선인터넷 연결, 대처방안 필요해

교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연결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고경선(무용 4)학생은 "학교에서 와이파이(WIFI)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3G로 접속한다. 데이터 무제한요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사용량을 확인해 가면서 인터넷을 해야한다"며 "3G사용량이 넘치게 되면 컴퓨터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서는 기능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송재호(무역 1)학생은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 봤더니 끊기고 세기가 약해서 3G로 접속한다"며 "데이터 무제한이기 때문에 와이파이는 꺼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공부 중인 김재우(경제 03)졸업생은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연결신호가 미약한 것 같다. 최근 3G도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와이파이와 3G 중에서 둘 다 연결 해 본 후 신호가 원활한 쪽으로 연결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인우(한국어문 4)학생은 "교내의 와이파이는 잘 잡히는 편이다. 데이터 무제한요금제가 아니

기 때문에 어떻게든 와이파이로 연결해 이용하는 편이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무선들이 엉켜있기 때문이다. 김성길(정보화팀)팀원은 "최근 많은 스마트폰이 쏟아지면서 각각의 스마트폰이 다른 OS(operating system)를 가지고 나온다. 이러한 OS들은 안정화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을 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네트워크 접속 시 불편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이처럼 무선 인터넷 서비스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학생들의 편의와 필요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지만 학생들에게 편의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성길 팀원은 "무선성의 경우 광중에 HP가 흡수력 확 인이 어렵다. 갑자기 많은 휴대폰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업체와 접촉해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고 답했다.

이연희 기자 odory11@hansung.ac.kr

제6회 한성교내 영어 스피치대회

- 접수 기간 _ 2011년 4월 18일 ~ 5월 15일
- 본선 대회 _ 5월 20일
- 대 상 _ 한성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포함)
- 주 제 _ 자유
- 형 식 _ A4 2장 (hwp 기준,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
- 제출 방법 _ 참가자 원서, 스피치 원고 직접 제출 혹은 e-mail 제출 (pianaly@hansung.ac.kr) (*5월 15일까지 참가지원서와 스피치 원고 제출)
- 상 금 _ 최우수상 : 상장 및 상금 30만원
우수상(2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문 의 _ 한성대 영자신문사 제 1별관 301호(우체국 건물)
☎ (02) 760-4195, 편집국장 010-9045-6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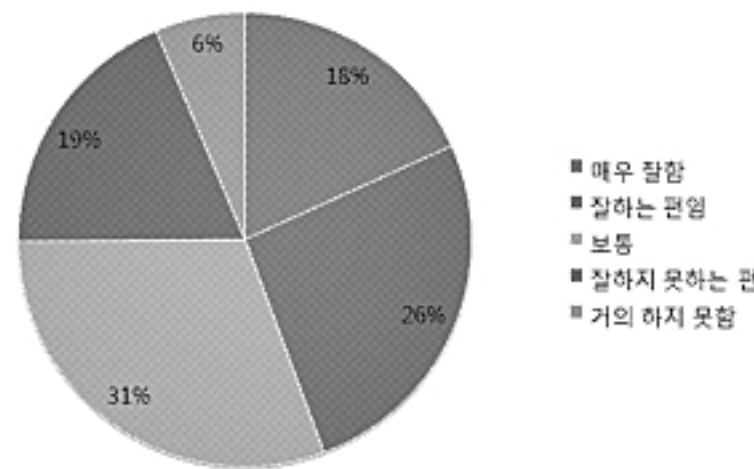
- * 타 영어 스피치대회 참가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 참가지원서 양식은 한성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스피치원고를 바탕으로 예선심사가 있으며, 그에 따라 본선대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상자는 참가자의 수와 작품의 질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 본선대회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 대회 참가자가 아니라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대회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주최 : 한성대학교 영자신문사 / 후원 : 한성프레젠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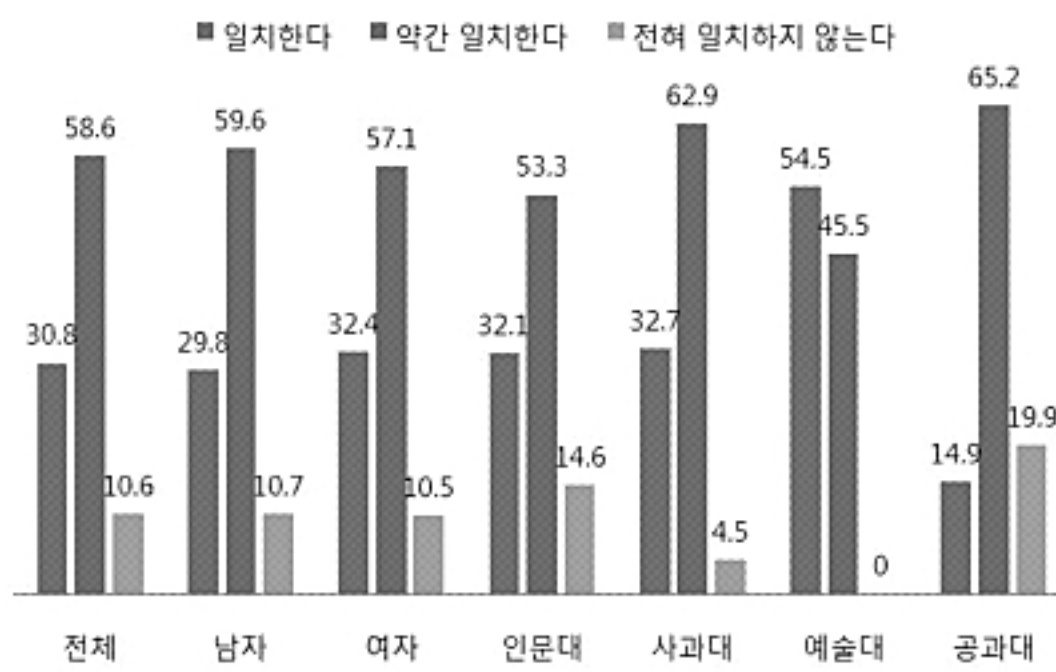
교차지원 학생 중 25.1%, 전공강의 이해 못 해 전공-적성 일치정도 89.4%



전공교차지원 시 전공강의 내용 이해 정도



전공-적성에 대한 일치도



입학 시 전공을 선택할 때 교차지원(자신이 수능 시험에 응시한 계열이 아닌 계열로 지원하는 것)을 한 학생들 중에서 전공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 잘하지 못하는 편, 거의 하지 못하는 통계결과가 각각 18.7%, 6.4%로 나와 25.1%의 학생들이 '전공강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학생생활연구』 제 18집, 2011. 이 조사는 2010년 3월2일부터 2011년 1월 20일까지 개별적으로 상담실을 내방하여 상담신청서를 작성한 6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공강의 이해정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보통이다(44.3%), 잘하는 편이다(38%)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단대별로는 예술대학이 '잘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공과대학이 1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진 전공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정도의 조사에서 '흥미 있다'는 응답이 49.2%, '보통이다'가 33.5%순으로 나타났다.

김나나씨(가명·인문대·27세)는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로 인해 졸업 후 우리학교로 학사편입을 한 경우다. 김 씨는 "처음 대학은 점수에 맞춰 진학을 했기 때문에 첫 수업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없어 충격을 받았다. 수업 커리큘럼을 봤을 때부터 의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며 "당시에는 공부분량도 많고 위험한 화학실험이 많았기

때문에 전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기를 중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이론수업보다 위험한 악물을 다루거나 화학야품을 다루는 실기수업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자신이 기대와 달라서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우영씨(가명·공과대·21세)는 "점수에 맞춰 진학한 후 적성과 전공이 맞지 않아 전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위의 동기들도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다른 공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이탈기 때문에 수학을 이해도가 높은 편이나 적성에 맞지 않는 컴퓨터 관련 과목은 도중에 그만 두는 등 전공공부의 흥미와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흥성미(학생생활상담소상담사)는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점수에 맞춰 학교를 결정해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전공에 흥미를 가지 못하는 학생이 많은 것 같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대의 경우 문과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과계열로 진학하게 되면 이과계열의 과목을 선행·기초학습을 하지 않은 채 어려운 과목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 계열성이 끊어지는 반면 예대의 경우는 어렵게 따라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선행학습과 기

초학습은 이과계열 전공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김나나씨는 학교에서 필요한 보완책에 대해 "다른 학교의 경우는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해서 기초과목분야의 과목의 수업을 개설해 정규강의 후 부족한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어져 대의 경우 학생들의 입학 전에 예비 신입생들을 위해 전공기초강좌를 들 수 있도록 한다"며 "이러한 방안들도 하나의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전공-적성 일치 정도 조사에서는 '약간 일치한다'가 58.6%, '일치한다'가 30.8%로 나타났다. 전공과 적성 일치도에서는 예술대가 54.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사과대(32.7%), 인문대(32.1%), 공과대(14.9%)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우수하다'라는 응답은 예술대가 41.8%로 가장 높았으며 인문대(33.6%), 사회과학대(26.2%), 공과대학(20.9%) 순으로 이어졌다.

윤동우씨(가명·인문대·24세)는 "처음에 진학했던 학교는 동기들과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학과와 나의 성격이 맞지 않아 반수를 통해 우리학교로 진학했다"고 말했다. 서차영씨(가명·예술대·23세)는 전공과목이 적성과 맞지 않아 일용고시를 준비 중이다. "입용고시 공

부에 뛰어들면 전공공부보다 눈앞에 놓인 공부도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며 "논문을 써야 하지만 고시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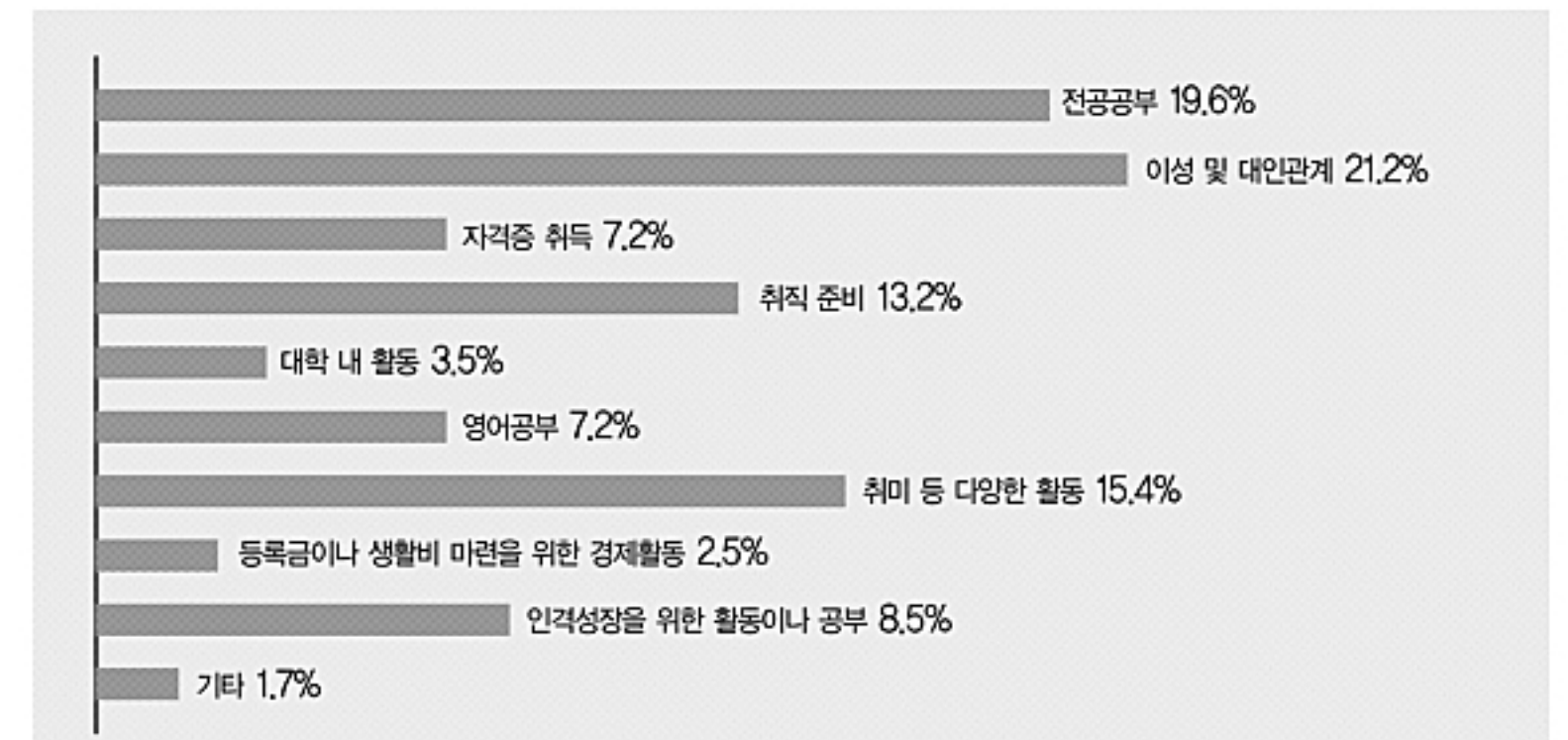
최인우(가명·예술대·28세)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경험을 했지만 적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그는 "원하던 전공으로 진학했지만 학교를 다니고 1년 정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나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자연히 흥미도와 관심이 떨어졌고, 지금은 새로운 적성을 찾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학과 친구들 중에서도 복수전공이나 전과를 통해 적성을 찾으려 하지만 전공에 흥미가 떨어져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원위치에서 맴돌게 된다"며 "학교는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간편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교양과목을 충분히 개설해 학생들이 들을 수 있다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접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흥성미 상담사는 "이러한 사실들이 얽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지 못해 전공강의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전공과목이 적성과 맞지 않는 경우 자신의 적성,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edory11@hansung.ac.kr

통계로 본 우리학교

신입생, 대학생들 중 이성 및 대인관계 교류 가장 원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이성 및 대인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학생지원처, 2009)에 따르면 신입생들이 대학생활 중 가장 하고 싶은 분야는 이성 및 대인관계가 21.2%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전공 공부 19.6%,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이 15.4%, △취직준비가 13.2%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전공공부가 22.7%로 제일 많았고 △취미 및 다양한 활동이 15.6% △이성 및 대인관계가 15.4% △취직준비가 12.8%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이성 및 대인관계가 25% △전공공부가 17.1% △취미 및 다양한 활동이 15.2% △취직 준비가 13.5% 순이었다.

단과대학별로는 ▲인문대학은 △이성 및 대인관계가 21.5%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이 20.7% △인격성장을 위한 활동이나 공부 14.3% △전공공부가 11.8%였으며 ▲사회과학대학은 △이성 및 대인관계가 20.3% △취직 준비가 18.3% △전공공부가 16.6% △자격증 취득이 12.9% 순이었다.

▲예술대학은 △전공공부가 41.0% △이성 및 대인관계가 18.6%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이 14.8% △인격성장을 위한 활동이나 공부 8.1%였으며 ▲공과대학은 △이성 및 대인관계가 23.3%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이 16.7% △취직 준비가 15.8% △전공 공부가 14.2%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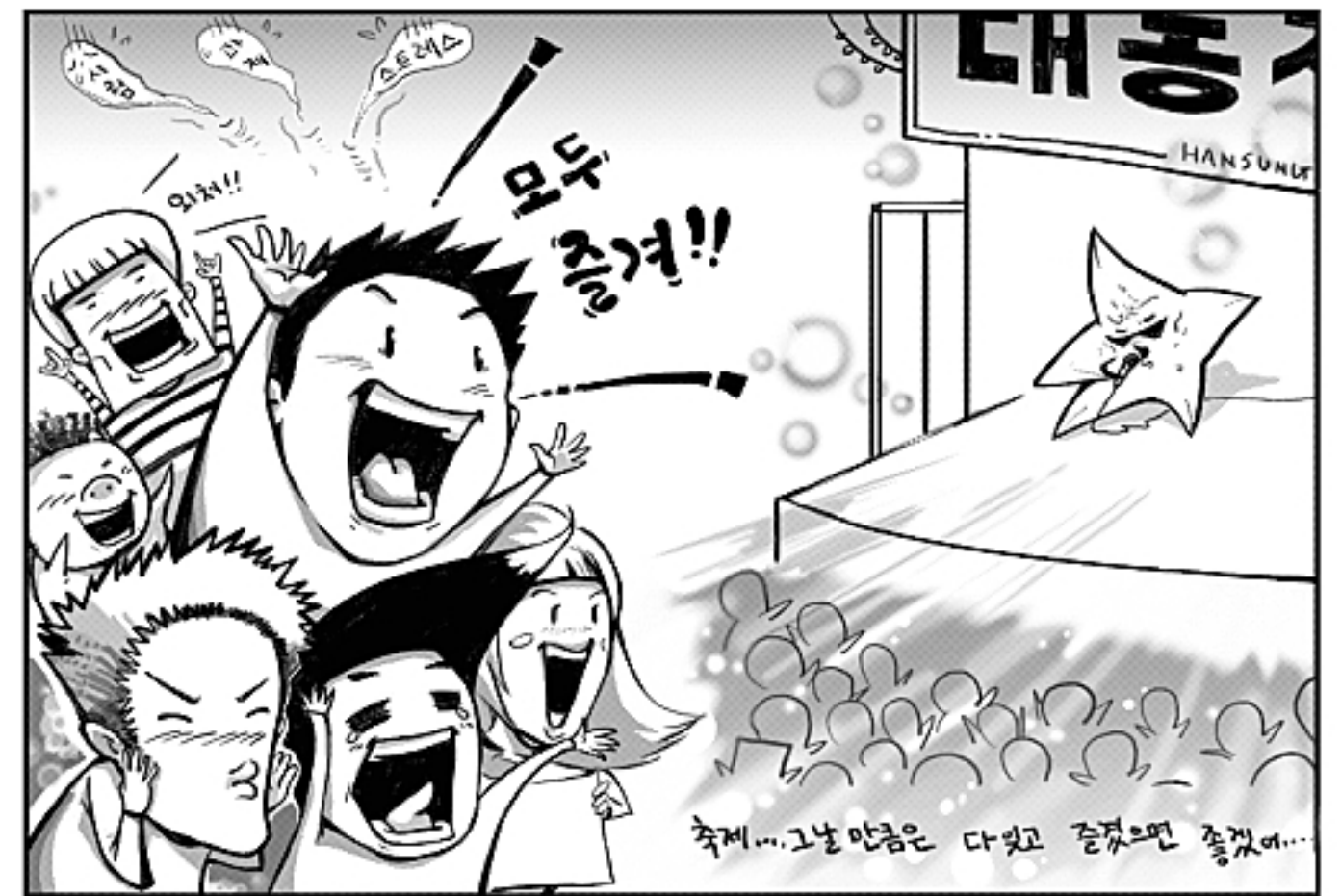
대체로 여학생과 예술대 학생은 전공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과 인문대, 사회과학대, 공과대는 이성 및 대인관계를 맺기를 더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이덕훈(지정 1)학생은 "갓 입학한 신입생이기에 나오는 생각이라 생각한다. 대학은 학문을 공부하는 장이니 이성 및 대인관계도 좋지만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한식(경영 3)학생은 "대학교라는 새로운 조직에 들어왔으니 인간관계에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생각보다 취미 생활보다 전공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놀랐다."고 말했다.

박현우 기자 hyunwoo@hansung.ac.kr

대학만평

이주영(애니제품 4)



축하...그날만큼은 다윗 같았으면 좋겠어...



2012 졸업앨범촬영 안내

| 시간 | 5/2(월) | 5/3(화) | 5/4(수) | 5/5(목) | 5/6(금) | 5/7(토) |
|-------|------------|------------|-----------|--------|-------------|-----------------|
| 09:00 | 기계 | 인테리어 | | | 의패 | 부재자 촬영 (11시~4시) |
| | 정통 | 패디 | 무용 | | 영문 | |
| 12:30 | 산공 (10:45) | 경영 (12:30) | | 예비일 | 국문과 (11:30) | 부재자 촬영 (11시~4시) |
| | 지정 | 경제 | 역사 | | 애니제품 (1:00) | |
| 14:30 | 회화 | 부동산 | 행정 | | 멀티 (2:30) | 부재자 촬영 (11시~4시) |
| | 정시 | 역사 (1:30) | 무역 (2:00) | | 시각 (2:30) | |
| 접수장소 | 창의관 1층 소강당 | | | | | |

대학생, 우울 속에 풍덩 빠지다

‘다행찾기’, 운동, 상담 통해 우울증 벗어나야

대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의 압박으로 우울 증에 걸려,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행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최근 9년간 대학생 자살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대학생 자살자수는 2001년 195명, 2002년 237명, 2003년 268명, 2004년 172명, 2005년 198명, 2006년 191명, 2007년 232명, 2008년 332명, 2009년 249명으로 연간 평균 230명이다.

지난 9년 동안 총 2천70명의 대학생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끝낸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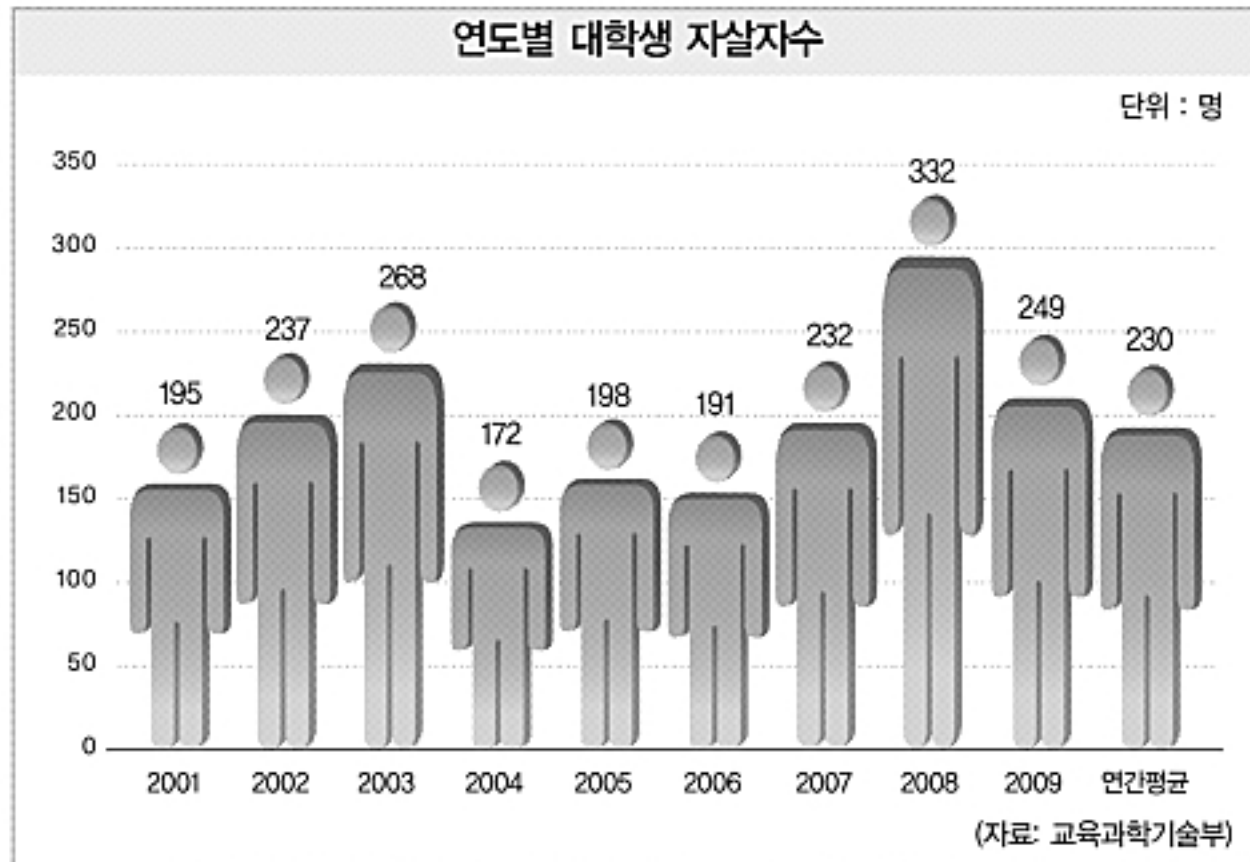
그 이유는 바로 학업과 취업, 가정의 불화, 연애 문제 등으로 비롯된 ‘우울증’이다. 한 예로 최근 취업정보 커뮤니티 ‘취업포개기’에서 대학생 77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9.6%의 학생이 ‘스펙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이 88.6%로 가장 많은 스펙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3학년이 71.1%, 1~2학년이 62.3%인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다. 졸업을 앞둔 고학년부터 아니라 저학년 대학생들도 상당수가 스펙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점, 대외 활동, 영어점수 등을 쌓는 스펙강박증에 시달리고 이는 학생들에게 우울감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우울증에 시달리게 한다. 실제로 스펙강박증에 시달린다는 학생들 중 55.8%의 응답자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답했다.

자살예방센터의 정미영 팀장은 “지금의 사회는 경쟁을 강조하고 있어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압박을 받으며, 사회적 관계보다는 남들에게 지지 않기 위한 공부를 최우선시하고 공부에만 열중한다”며 “때문에 공부에만 치중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 홀로 괴로움을 쌓아 가며 병을 키우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쟁을 추구하는 사회와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업, 취업 등 자신의 일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다보니 우울증에 빠지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홀로 괴로워하다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울증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홍성미(학생생활 상담실) 상담원은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될 때 우울감을 느끼고 이런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에 빠져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대인기피



증을 보이게 된다”며 “우울증에 빠진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약물치료와 더불어 상담 등이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울증이 아닌 우울감에 빠진 경우에는 ‘다행찾기’, 운동, 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몸을 움직여 우울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행찾기’란 가슴 김장훈 씨가 지금 내 인생에서 다행인 점은 무엇인지 찾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좋은 점을 찾는 것이다.

홍성미 상담원은 “우울증에 빠진 이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때문에 본인에게 채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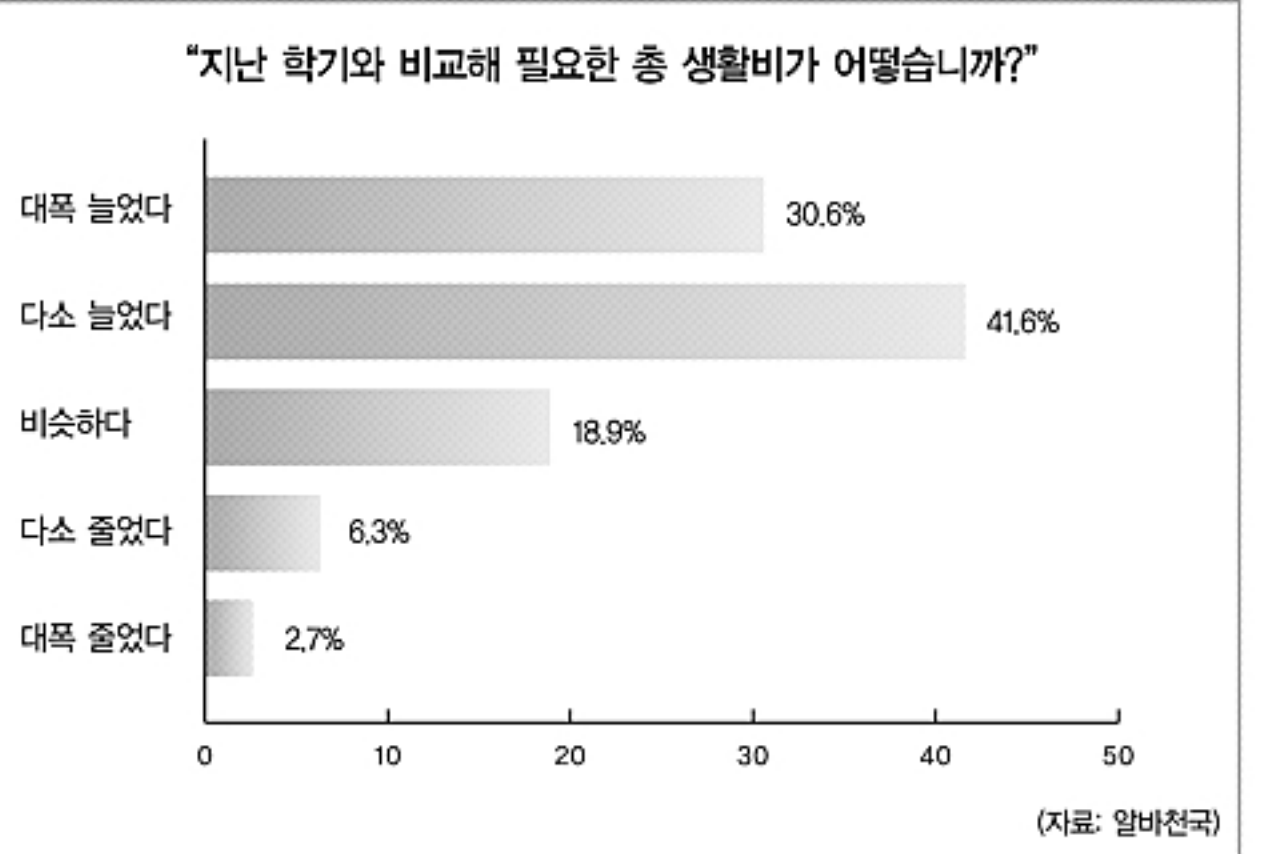
진 것보다 채워지지 않은 것을 크게 느낀다”며 “따라서 부정적 사고가 아닌 긍정적 사고를 통해 사고의 유연성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내의 경우 학생생활 상담실(02-760-4171)에 사전 예약을 하면 전화,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학교 근처의 성북구정신보건센터(02-969-9700) 등의 지역 보건센터를 이용해 전화, 이메일,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형신 기자 phstlan@hansung.ac.kr

■ 통계로 본 한국사회

‘늘어난 생활비 부담’ 대학생 허리 휘다



대학생들은 전년에 비해 생활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느끼고, 10명 중 7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평균 생활비로 42만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이트 전문 포털 업체인 알바천국이 전국 대학생 3천637명을 대상으로 ‘신학기 대학생 생활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지난 학기보다 필요한 생활비가 ‘다소 늘었다’(41.6%) 혹은 ‘대폭 늘었다’(30.6%)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72.2%가 ‘생활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참여자 중 오직 27.8%의 학생만이 ‘비슷하다’(18.9%), ‘다소 줄었다’(6.3%), ‘대폭 줄었다’(2.7%)고 대답해 대학생들이 느끼는 생활비 부담은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대학생들이 소비하는 한 달 평균 생활비는 42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생활비 분포는 10~30만원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30~50만원(29.9%), 50~60만원(11.8%), 60~80만원(8%), 80~100만원(6.2%), 100만원 이상(6.4%)으로 조사됐다.

이런 높은 생활비 부담에 대학생 10명 중 7명은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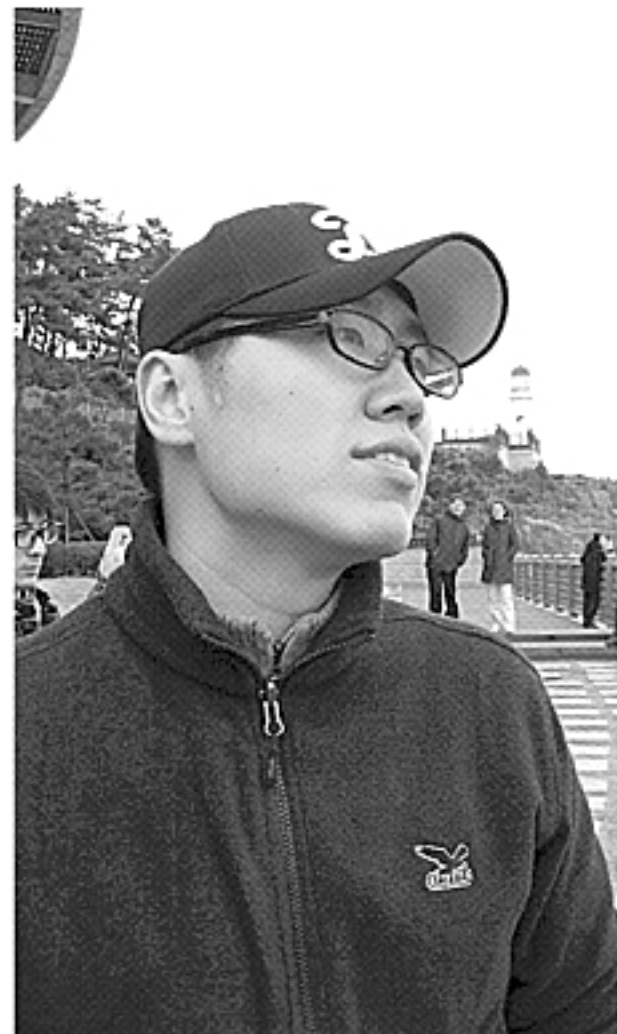
를 충당하고 있다. 등록금과 더불어 생활비까지 부모님께 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조달하는 이들은 생활비의 90~100%를 조달하는 이가 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50%(13.2%), 10~30%(13.1%), 50~70%(9.8%), 70~90%(9.5%), 1~10%(8.2%) 순으로 68.8%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조달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전혀 충당하지 않는다’를 택한 31.2%의 학생은 생활비를 전부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년에 이어진 물가 상승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이라고 표현하면서 물가 상승이 더욱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학업과 등록금, 취업 부담에 이어 이제는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마음 편히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박형신 기자 phstlan@hansung.ac.kr

“나는 병역을 거부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한국 사회



“평화를 사랑합니다.” 2006년 당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3학년이던 박경수씨가 병무청에 보낸 글의 서두이다. 그가 병무청에 글을 보낸 이유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의 이라크전 파병을 바라보면서 군대가 단순히 국토를 방위하는 것 외에도 타국을 침략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란 양심상의 이유로 혹은 종교적·정치적·윤리적·철학적 신념에 의해 군복무 또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누적된 병역거부 수감자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불교 신자인 오태양씨가 공개적으로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사회운동으로서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먼저 변화

를 겪게 된 것은 사법부였다. 군사법정이 아닌 민간법정으로 병역거부 재판권이 옮겨져 자, 병역거부자들에게 3년형을 선고했던 관례에서 벗어나 1년 6개월형이 선고되기 시작했다. 또 이전까지 병역거부자들에게 행해졌던 가혹행위도 자취를 감췄다.

이후 국회에서도 임종인·노회찬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 상정 등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UN에서는 한국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듯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가 대체복무제와 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아직도 병역거부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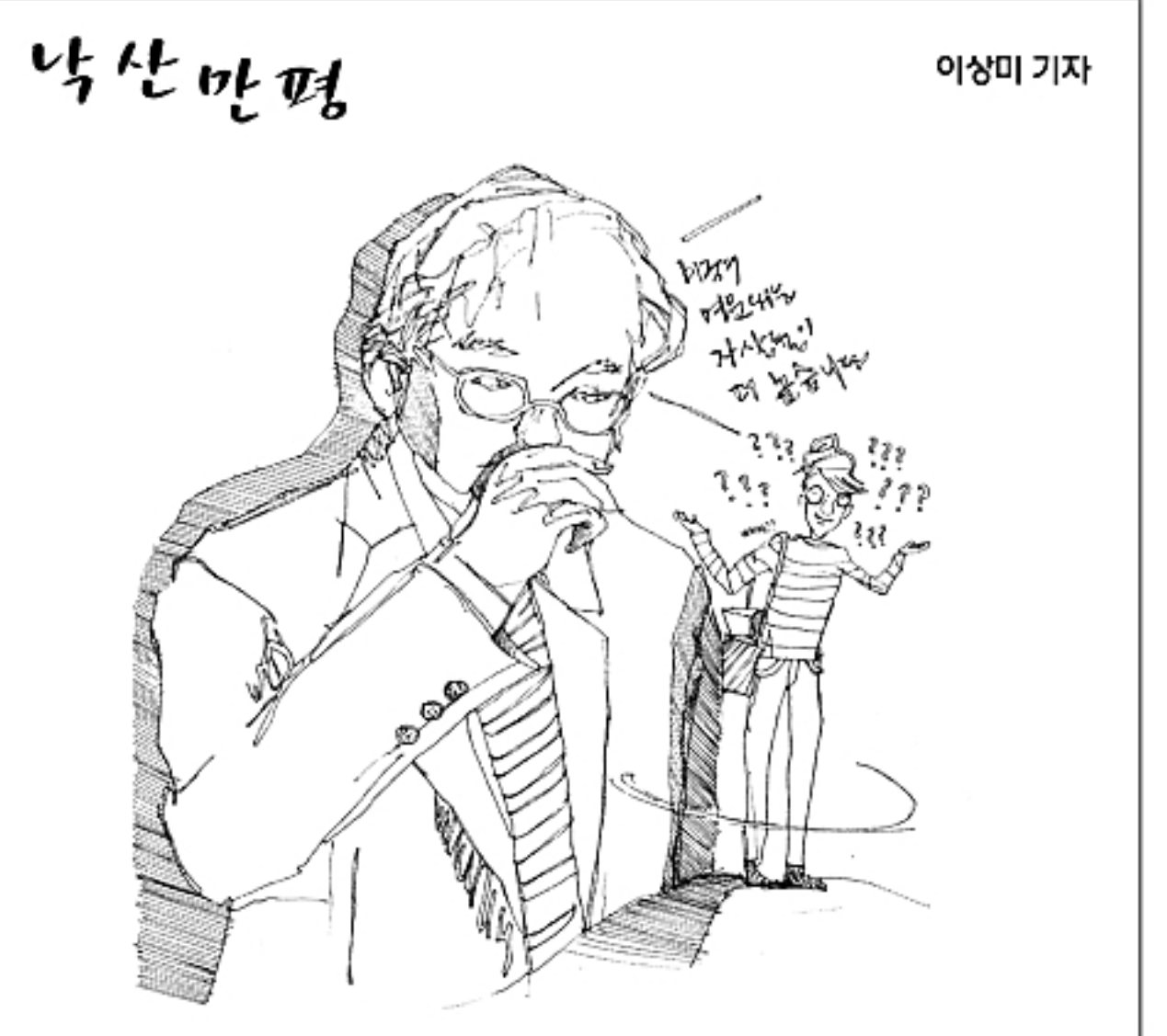
박경수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아직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량은 줄었지만, 전과자로서의 불이익은 평생 안고 가야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병역거부를 법

으로 처벌하려는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이런 생각은 정부만의 입장만이 아니다. 우리사회에서도 병역거부를 범죄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많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이남석 지음, 그린비)에서는 이런 인식이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을 비정상인으로 취급하는 법의 내용에 근거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병역을 거부하는 것 자체를 비정상적인 정신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경수씨는 “이제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단지 군복무자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박경수씨는 주한미군범 최근절운동본부에서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경민 기자 jngmin@hansung.ac.kr



박산만평

이상미 기자

“너답게 사고하라! 너를 표현하라!”

2011학년도 제 5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지정주제

1. 서로 다른 공동체에 대한 문화 현상 원인 분석 후 입장 제시
 2. 사회의 한 단면을 분석 후 현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3.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로 인한 사회변화와 대처 방안 제시
- * 지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에서 확인 후 반드시 숙지할 것.

대회일정

1. 예선 접수: 2011년 5월 2일(월)~2011년 5월 13일(금)
2. 본선 발표: 2011년 5월 17일(화)
3. 본선 대회: 2011년 5월 19일(목) 미래관 DLC 오후 2시~오후 4시

접수방법

1. 지정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프레젠테이션 문서로 작성
2. 출력문서 3부 (페이지 당 2개 슬라이드 들어간 유인물로 출력)를 사고와 표현 연구실로 제출
3. 프레젠테이션 원본 문서 파일을 사고와 표현 이메일(writing@hansung.ac.kr)로 제출

심사기준

- 예상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평가
1. 논리적 구성 및 전달력
 2. 내용의 창의성
 3. 효과적인 주제 전달
 4. 슬라이드 구성

본심: 발표 능력 평가

1. 논리적 설득력 및 전달력
2. 내용의 창의성
3. 슬라이드 구성 능력
4. 발표전략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단과대학 구분 없음)-상금 50만원
우수상 4명(단과대학별 1명)-상금 각 20만원
佳作 8명(단과대학별 2~3명)-상금 각 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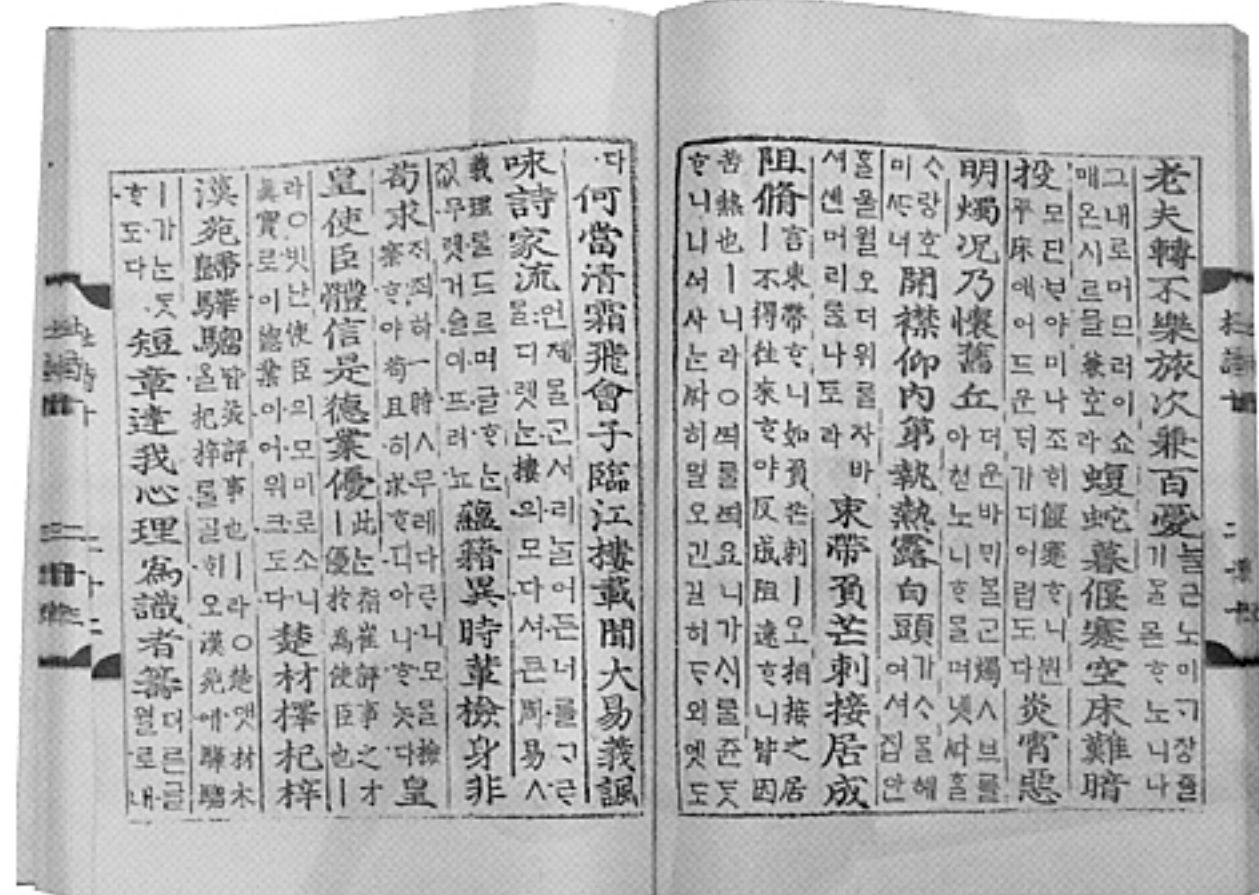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문의: 사고와 표현 연구실(연구동 B101, 02)760-4354, 이메일(writing@hansung.ac.kr),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http://writingcenter.hansung.ac.kr>)자유게시판

한시, 그 그윽한 아름다움

동양의 삼라만상을 담은 거울

돌아가자
 눈발이 황폐해지고 있거늘 어이 아니 돌아
 가리
 지금껏 스스로 마음을 육신의 노예로 부렸
 으니
 어찌 홀로 근심하고 슬퍼하는가
 지난일 돌아볼 수 없음을 이미 알았으니
 앞으로 일은 올바르게 할 수 있음도 알았도다
 길이 어긋났으나 실제로 멀어진 건 아니니
 잘못된 지난 것들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하
 리라
 배는 흔들흔들 가볍게 흔들리고
 바람은 휘날 휘날 웃자락 날린다



▲ 두시연해, 당의 시인 두보의 시를 번역한 것이다.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는 시의 일부이다. 송 대의 시인 도연명이 낙향 하면서 지은 시로 원문은 한문으로 지어진 한시다. 지금 저 시를 보고 '어렵다'라는 감정을 가진 이는 적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저 해석 옆에 한자로 이루어진 원문이 붙어있었다면 어땠을까? 해석이 붙어있을과 관계없이 막연히 느껴지는 어려움에 고개를 흔들었을 것이다.

대개 한시를 어렵고 고리타분한 구시대대의 유품이라 말한다. 하지만 고려정자를 보자. 과거에도 최고의 명품으로 인정되었던 고려정자. 그 아름다움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인정 받고 있다. 이 고려정자를 보고 그것은 구시대대의 유품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는 얼마만큼 것인가.

한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조상들이 아름다웠고 여겼기에 길이 전승되었고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시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려하지 않고 그것을 그저 어렵다며 멀리한다. 이에 대해 이종목(서울대 한문학과)교수는 그것은 '낯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거 조상들이 즐겼으며 그들 생활의 일부였던 한시. 하지만 이제는 접할 기회가 드물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시에 낯설음을 느끼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종목 교수는 "이러한 낯설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많이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낯선 사람과 친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한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시를 자주 읽고 접하다 보면 절로 한시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 이러한 한시에 어떠한 매력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자. 한시의 아름다움은 먼저 '소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이종목 교수는 "한시를 낭송하다보면 침이 튀어나올 정도로 거친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소리가 부드럽워 일만에 침이 고이는 것도 있다. 또 한 작품 안

에서 한 구절이 거친 소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소리로 한 구를 구성하기도 한다. 거친 소리와 부드러운 소리가 교차되면서 강약 리듬을 형성하면서 시를 낭송할 때의 즐거움을 준다." 그 뿐 아니라 시안에는 여러 소리가 담겨있다. 바람 소리, 개 울음 소리 등 자연의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 목동의 피리소리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시를 읽는데 좀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시가 노래하는 주제에 주목해 보는 것도 좋다. "그대는 어찌 먼저 출세하고 나는 어찌 이리 늦는가(君何先達 我何遲). 가을엔 국화, 봄에는 난초, 각각 때가 다른 것이니(秋菊春蘭 各異時). 당년에 먼저 계수나무 가지 를 꺾었다고 자랑하지 말게(莫誇當年 先折

桂). 달 가운데 제일 높은 계수나무 가지는 여전히 남아있다(月中猶有 最高枝). 송제 나 세찬의 시다. 매사에 조금해 하지 말고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철학적이 깨달음을 담고 있는 한시가 있는가 하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한시도 있다.

'꽃나무 사이 한 잔치 술(花間一壺酒) 천 구 없이 혼자 마시다(獨酌無相親) 술잔 들어 달을 맞으니(舉杯邀明月) 내 그림자랑 셋이 되었네(對影成三人) 달이야 본래 술 못하지 만(月既不解飲) 그림자는 고분고분 나를 따르네.(影隨隨我身) 달과 그림자 잠시 벗하여(暫伴月將影) 이 봄을 한껏 즐겨 볼까(行樂須及春) 내 노래에 담은 어찌(我歌月徘徊) 내 춤에 그림자는 범벅춤 춘다(我舞影凌亂) 깨어 있어선 함께 즐기다(醒時同歡) 취해 잠들면 헤어지나니(醉後各分散) 시를 읊는 우리 사귀 길이 맺어지(永結無情遊) 먼 하에서도 만나자(相期邇雲漢) 이백의 시다. 술에 취해 달을 잡으려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백. 그의 시답게 술을 마시다 달과 함께 벗이 되었다는 내용을 시에 담고 있다.

이종목 교수는 "시는 시인이 삼라만상을 담은 거울이다. 그것은 한시도 그러하다. 이러한 삼라만상의 여러 소재가 어떻게 묘미 있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한시의 아름다움이며 재미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점점 삶이 각박해져가고 있다. 뉴스에는 온통 불경기를 이야기하고 등록금은 올라서 내 려울 줄 모른다. 이렇게 힘든 시기. 아름다운 한시 한 수로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박현우 기자 hyunwoo@hansung.ac.kr

동양화 스토리

정신적 깊이와 맑고 단아한 필법의 세계



▲ 이하응 '석난(石蘭)' - 대련, 1892년, 비단에 수묵, 각각 23x 32.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수묵화의 표현에서 사물의 절묘양보다 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그것을 그리 는 화가의 내면적인 정신을 중요시하는 그 림을 사의(寫意)적 화풍이라고 한다. 이러한 화풍은 채색화보다는 수묵화에서 더욱 중 요하게 인식되어 왔으며 궁정화기보다는 사대부나 문인화가에 의해 주로 전개되었 다.

시의적 화풍의 배경에는 인간의 정신세 계를 강조하는 노장사상과 불교, 유교 사상이 바탕이 되고 있어,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예술세계로 인식되기도 한다. 중국의 장조 가 말한 '외사조화 중독심원외화(外師造化 中得心源)에서는 우주의 섭리를 익히고 인오

등 여러 화가가 배출되고, 묵년(墨蘭)의 대 가 대원군 이하응과 민영익, 괴석 그림의 정 화교 등이 여기에 가담하여 조선 후기 문인 화단이 형성되었다. 중국의 남종화풍은 16세기 전반기 심주, 문 징명 등이 그 기초를 두었으며, 명나라 말기 에 동기창, 진계유 등이 나타나 크게 번성하 였다. 명나라 말 때 발생한 필파의 시조 대진과 그 뒤를 이은 오위, 장로, 장승, 정전선 등은 강하고 예리한 필법에 중점을 두면서 기교 를 중시하던 데 비하여, 오페는 정신적인 깊이 와 맑고 단아한 필법을 중히 여겼다. 이러한 화풍은 당시 필파를 압도하여 청나라 때의 화가에 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홍선 대원군 이하응은 10년간 섭정을 하 여 역사에서 특유의 자취를 함께 남긴 정치 가이면서, 특히 서화에는 영웅의 기개가 넘 치고, 화자다운 문기 또한 있어, 특이한 맛 과 운치가 흐른다. 그의 '석난(石蘭)'은 1892년 73세에 그린 작품으로써 각기 좌우 중앙에 괴석을 그리고 그 상하에 두 종의 난을 나타내고 있으며, 초예제(草隸體)의 갈 필로 잎이 좁고 긴 난 잎을 자신감 넘치는 익숙한 필선으로 거침없이 표현하였다. 또 한 한쪽이 성글면 반대편을 촘촘히 엮을 그 랐고, 괴석도 길이와 부피가 강조되게 묘 달

남긴 정선도 남종화풍의 좋은 작품을 남겼 고, 그의 제자인 심사정도 높은 경지의 좋은 작품을 남겼다.

화풍으로서 남종문인화는 영·정조 시 대에 와서 기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진정 한 유행과 토착화는 김정희 일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유교와 불교의 동 양적 사고를 바탕으로 시서화의 일치를 보 여 주는 김정희의 작품은 중국 문인화의 세 계를 능가하는 경지를 보여 준다. 이러한 김 정희의 영향으로 허유, 조희룡, 전기, 허민

은 마음의 근원을 터득해야 함'은 사의 적 화풍의 화화관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말 로 알려져 있다. 명·청대 남화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에서 남화나 남종문인화가란 관심의 대상 이 된 것은 조선 후기의 숙종·영조 때이다. 남종화는 18세기 초엽부터 조선왕조 화실 에 본격적으로 침투하여 선비 화가들은 물 론 화원들도 보편적으로 이를 떠났다. 이 시 대에 활약한 대표적인 남종문인화가로는 이인상, 강세황, 신위 등이며, 이에 앞서서 후기 화단의 선두로서 탁월한 진경산수를 남긴 정선도 남종화풍의 좋은 작품을 남겼 고, 그의 제자인 심사정도 높은 경지의 좋은 작품을 남겼다.

이근우 / 현 조선대학교 대학원 강사

학술서평

시대를 풍미한 한시 작가들

『한시가 있어 이야기가 있고』/이종건 지음/새문사



작품을 연구하 는 데 있어서, 그 작품을 만든 작가 와 시대상을 이해 하는 것은 아주 중 요한 부분이다. 때 문에 고전 시가를 연구하는 사람들 은 배경 설화를 함 께 연구한다. 이런 배경 연구는 한시를 연구 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은 배경 연구에 초점을 맞춰 한시를 좀 더 쉽게 이해하 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전반적인 책의 내용은 시에 대한 간략한 설명, 시를 지은 작가에 대한 평전, 시가 창작

된 배경 등이다. 또 작가의 성향을 한 줄로 요약해 표제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하다. 이 책은 한 시대에 창작된 한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개화기까지 나왔 던 대표적인 한시들을 다룬다. 때문에 각 시기에 어떤 주제의 한시가 유행했는지, 비교 해서 살펴볼 수 있다.

책에는 총 81명의 시인이 등장한다. 물론 뛰어난 문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인물들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충신의 모습도 있고, 권력에 거부하는 간신의 모습도 보인다. 이런 여러 시인들의 특성과 시를 비교 해보는 것도 한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한시의 수사학

『한시의 세계』/심경호 지음/문학동네



시를 쓰는 데에 는 수사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수사법을 통해서 시인은 자신의 생각을 숨기기도 하고, 변형시켜서 보 여주기도 한다. 한 시도 일정한 작법 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크게 다르 지 않다. 다만, 한자와 한글의 차이 때문에 작 법이 다를 뿐이다.

이 책은 생소할 수 있는 한시 작법과 한시의 특징들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나오는 내용은 기본적인 한시의 형태에서부터, 한시에

드러난 다양한 주제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 양하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해당 작법이나 특징이 나타난 시들을 예로 사용하는 것 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이 단순히 한시의 작법이나 특징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부분 에서 우리나라 한시가 가진 가능성에 대해서 도 서술한다. 작가는 여기서 우리나라 한시 가 중국 한시의 단순한 아류가 아님을 이야 기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한시를 풍부하게 읽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시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시의 특징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우리 한시에 대 한 관심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36th 낙산가요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1년 5월 7일~8일
AM 11시~PM 6시

참가자격: 순수창작곡으로 참여하는 대학생 누구나

예선장소: 한성대학교 2층 방송국

참가비: 개인 5천원 단체 1만원

36th 낙산가요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품

- 대상 100만원
- 최우수상 30만원
- 우수상 20만원

준비물

- 참가신청서, 악보 3매, MR, 재학증명서

문의사항

- press.hansung.ac.kr
- 02)760-4184, 010-6503-6538

|사설|

하프타임

거의 모든 경기에는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다. 하프타임이란 축구 혹은 농구와 같이 전후반이 있는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에 쉬는 시간을 말한다.

하프타임은 전반전에 소모된 체력의 회복을 위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인 동시에 또한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전반전에서 우리 팀의 실수와 성공, 그리고 상대의 실수와 전략을 검토하여 우리 팀이 경기에 승리하고 있다면 승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고 있다면 상황을 역전하기 위하여 작전과 전략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다. 전반전을 뛰여 본 선수들에게는 코치가 주는 작전지시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작게 혹은 크게 여러 형태의 하프타임이 존재한다. 전반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나 지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하프타임에 들어오는 모습은 모두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잘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또한 희생이 따르다. 지치고 혼란스러워하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을 위해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한다.

삶의 후반전을 위해 목표와 방향을 수정하여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 전반전에서 이미 경험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정확하고 냉정하게 후반전을 치러야 한다. 전반전을 경험한 우리에게 하프타임을 통한 우리 자신의 변화는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새로운 돌

파구가 될 것이다.

전반전을 뛰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나 돌발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 흔히들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라고 말한다. 기존에 세분화되었던 학문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각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떼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주어졌던 하나의 학문 분야 내에서 기존의 학문적 개념으로 이해, 규명 및 응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학창시절에 준비해야 할 것이 더 많이 늘었다. 학제간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속 단과대 이외의 다른 단과대학의 학문 영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한 학기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고사가 끝났다. 축구 경기로 치면 하프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어떻게 한 학기의 전반전을 치렀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 무엇이 실패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성공했는지 알기 위해서 나의 전반전을 꼼꼼히 들여다보자.

주변에 훌륭한 코치들이 있다. 지도교수 혹은 평소 존경하는 학과교수에게 찾아가서 문제를 내어놓고 상담도 해보고 가까운 친구들과 자신의 비전을 나누어 보자. 반환점을 지난 마라토너가 결승점까지 가기 위하여 전략적인 체력 안배와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치러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학기의 후반전을 넘다름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맞이하여야겠다.

의 화 정



이상혁 교수 (영어교육학)

세상을 의연하는 사람, 속세에는 무관심한 사람, 세속적인 삶을 즐기는 사람, 현상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이렇듯 자신에 꼭 빠져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다. 인간의 삶이 다양하다는 말이다. 그런 외중에 세상을 먼저 경험한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무서운 던지는 말이 있다. "물 흐르듯이 사는 게 만사 편하다", "순리대로 살자" 그러면 끄덕끄덕? 아니면 절레절레?

그런데 나는 그러한 말이 잘 와 닿지 않는다. 최소한 이제 인생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대학생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철학적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공할 능력이,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지만, 위와 같은 언사들이 청년을 늙게 만든다면 좀 간섭을 하련다.

세계시민(cosmopolitan)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축자적 의미를 통해 추측해 보면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정의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시민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국제인이라면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세계시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 대학생들이 해외연수와 봉사

를 다녀온다는 것만이 세계시민에 편입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계시민은 잘못된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세계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가치를 존중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지향하는 이들이다. 국적에 구애받지 않고, 굳이 외국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국제적인 다원주의의 생각과 사유를 지닌 사람들이다. 이산(diaspora)의 이념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오리엔탈리즘이나 옥시덴탈리즘에서 자유로운 존재... 청년이 늙지 않으려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인생 전체를 보면 꽤 생산적일 수 있다. 순리대로 사는 건 아닐 수 있더라도 이러한 삶의 태도는 건강한 청년의 세계관으로 귀착될 수 있다.

장자에 나오는 이런 말이 있다. "대봉역풍비(大鵬逆風飛, 생어역수영(生魚逆水泳),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하늘을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친다는 뜻이다. 바람을 따라서 순풍에 돛 달듯 가는 삶과 물 흘러가듯 사는 삶을 거부하는 실천이다. 위에서 언급한 21세기 세계시민의 인식 태도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어쩌면 현실을 지나치게 방관하거나 무시하는 것일지 모른다. 먹고 살기 바쁘고 취업 걱정이 우선순위인 청년의

삶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늙지 않으려면 가까이 나는 이 길을 권장하고 싶다.

영어 스펙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필요한 영어를 잘 구사하는 학생, 자격증 스펙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미래를 구상하는 청년! 그런 삶이 물 흘러가는 대로 인주하면서 사는 삶 보다 재미가 없을까? 대학생 청년이 세계시민의 삶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현실적 삶에 대한 가치를 따져 본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삶이 과연 손해일까? 아니 백번 양보해서 두 가지 삶을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 세련된 청년 계층을 잡을 의향은 없는지 학생들에게 되묻고 싶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가수의 노래 제목인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언어들처럼'과 그 노랫말이 요사이 썩시하게 들린다. "어려 갈래 길 중 만약 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을 거야. 걸어 갈래 가다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러진 햇살을 보겠지" 청년의 뒷에 빠지지 말고 청년의 뜻을 달고 달을 올려라!

449호를 읽고

1. 449호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 기획면 '동물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시선'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인간 중심 사회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동물들의 권리와 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애원동물은 언제부터가 지구상의 모든 공간이 인간 위주로 사용, 개발되면서 자연히 동물들은 부수적인 위치에서 홀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탓에 그들에 대한 애호심과 배려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세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서양의 사례를 비교분석한 의도와 방법이 탁월했다고 본다.

2. 449호에서 아쉬웠던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 교직원 인건비 인상 보도는 시기적으로 등록금 인상과 연계되어 생각할 수 밖에 없지만 교직원의 임금 자체가 인상된 것을 문제 삼는 보도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가 빚어낸 노동유연화 등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권리와 대우가 날이 갈수록 그 질이 저하되고 설 자리를 잃어 가는 실정이다. 이런 때에 임금 인상을 등록금 문제와 연결지어 부정적 인상을 심어

주는 보도 방향에는 공감하기 힘들다. 만약 인건비 인상에 부담함을 발견했다면 그것의 시정, 개선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직원들의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학생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했고 언론 신뢰도 확보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기사의 보도 의도와 방향이 애매하고 기사가 독자에게 주지하려는 전달력이 떨어져 보인다.

3. 한성대신문에서 다뤘으면 하는 아이템은 무엇인가요?

- 중간고사가 갈무리 된 이 시점에, 성적 채점 기준(상대평가)에 대해 저지않은 학생들이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 점에 상대평가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해 기사화해보면 어떨까? 어떠한 평가방식이 학생들의 아카데미적 내공을 신장시키고 보다 공정한 평가에 기여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제기가 될 수 있을 듯하다. -단대별 체전으로 우리는 정말 즐거우나? 소음과 강제동원으로 오히려 불우쾌함을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전 세대에 있었던 매스게임과 비슷한 인상, 체육을 통해 단결성을 유발하는 것도 어떤 식상하고 구태의연하다.

4. 취재면, 사회면, 학술면, 문화면, 기획면 등 각 면을 평가해주세요.

- 취재면 : 단과대학별 예산편성, 사업계획을 알려 많은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글자가 쓰여진 사업계획을 열거,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학우들의 주의를 끌기 쉽지 않다. 관심이 적고 단지 숫자에 불과한 예산편성과 같은 것은 다만 간략히 전하고 실제 학생들의 이동과 참여를 기대하는 사업계획을 표로 정리해 전달성을 높이는 쪽이 나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학술면 : 인간이 무의식적, 종교적 영역에서 받는 영향이 때로는 이성적 사고를 저해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증명이 되었다. 역사적, 종교적 관념으로 인한 차별과 피해의 참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또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혹사병 창궐 당시 유럽에서 벌어졌던 유대인 학살, 관동대지진 당시의 제일한 국민들의 박해 등을 인용해 신빙성을 갖추었다. 덧붙여 관련 도서를 권함으로써 사고의 성숙을 돕는 이 기사는 옥심쟁이, 우후훗! - 문화면 : 문화면은 늘상 만족스러운 지면. 모방, 잡동사니, 천박함으로 졸군

김미래 (역사문화 4)

펼쳐되던 '키치'에 재조명을 가해 대중예술의 발전을 돕고 대중과 예술의 괴리를 좁힌다는 이점을 파악해 보도화한 것이 꽤 인상적이라 느껴진다.

5. 사진의 크기, 기사의 글자 크기, 헤드라인, 컬러 등 디자인적인 면은 적절했나요?

- 다만 취재면에 학생 요구사항과 인건비 인상을 보도하면서 회화과 교수의 패셔쇼를 동시 보도하는 것은 전달성과 통일성이 부족한 듯한 인상을 준다.

6. 449호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종합해 의견을 정리해 주세요.

- 학보의 보도 시각과 범위가 넓어져 독자에게 전해주는 바도 컸을 거라 생각하며 골목할만한 성과로 보여짐. 449호는 정면에 충실했다. 즉 각 보도면이 각각의 명칭에 상응하여 부합해서 써 우수했다. 취재면은 취재면답게 학교 내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기여하고 사회면은 사회면답게 학교 밖 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해 독자들의 시야를 넓혀 주었고 문화, 학술면은 문화, 학술면답게 심도있고 의미있는 보도로 즐거움을 주었다. Good. 원래 교양수업의 목표는 지식인으

독자투고-개인칼럼

교양과목 선택의 폭을 늘려야 한다

내가 학기 초에 수강신청을 했을 때 원래 생각했던 교양과목 강의를 다 선택하지 못했다. 물론 나의 클릭이 느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수강신청이 다 찼기 때문이었다. 다른 단과대학의 교양과목 역시 신청이 마감되어 있었다. 그래서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야간수업으로 학점을 채워야만 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우리학교는 교양수업 선택의 폭이 좁은 것 같다. 내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 우리학교는 학생수가 500명이면 한 강의 당 50명의 학생이 듣는다고 가정하고 10개의 교양강좌를 개설한다고 한다. 이는, 학생 수에 따라 강좌수를 개설하여 폐쇄되는 수업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서는 교양과목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 타 단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정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강신청이 일찍 마감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수업 내용이나 더없는 소속 단과대의 교양수업만을 들어야 한다. 교양수업은 전공수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원래 교양수업의 목표는 지식인으

로의 기본소양과 실용적 사회인을 위한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과 상식을 갖춘 지성인이 되자는 것이다. 나의 입장에서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속 단과대학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수업이라면 다른 단과대에서도 교양과목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때문에 나는 우리학교가 교양과목의 수를 늘려서 타 단과 학생들도 자유롭게 다양한 교양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소속 단과대학 안에서 다양한 교양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학과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분야의 다양한 과목을 접하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처음부터 막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막는 것과 같다. 또 교양과목을 늘림으로써 학생들에게 풍부한 배경지식을 늘려주어 우리학교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나는 학교가 학생들의 포부를 실망시키지 않고 꿈을 실현시키고 학교에 많은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양과목을 많이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한성대신문사에서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며 느낀 행정 및 복지시설에 대한 불편한 점, 공개기구 또는 학생회에 건의사항, 학우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 등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을 주제로 한 글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길 은 한성대신문 여론면에 실립니다. 한성대신문사는 교내 구성원들의 솔직한 고 참신한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매수 : 5매(이미지 포함 7매(이미지 미포함)) 마감일자 : 5월 9일(목)까지 투고대상 : 한성대신문을 읽는 교내 모든 구성원 혜택 : 신문에 독자투고자 실린 분께 소정의 원고료 제공 투고 주체 : 학교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좋은 점, 아쉬운 점, 건의사항 등 투고방법 : 이메일 press@hansung.ac.kr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 02)760-4186 편집국장 : 010-7124-5831 한성대신문사

학술정보관 주최 [저자와의 만남]
★ 저자: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교수
[저자 소개]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강의, 최고의 멘토
- 저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현재 베스트셀러 1위
★ 일시: 2011년 5월 18일(수) 14:00 ~ 16:00
★ 장소: DLC (미래관 B1층)
☞ 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변경사항 발생시 5월초에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20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20대...
지금, 이 힘든 시대를 헤쳐나가는 한성인들을 위하여
김난도 교수님의 강연을 기획했습니다.
저자의 따뜻한 위로와 냉철한 지성이 함께 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한성인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고,
가슴속에 품어왔던 여러분의 꿈에 한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책 내용 중에서..... (일부 발췌)]
그때, 인생은 얼마나 산 것 같았는지? 이 질문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물어보겠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24시간에 비유한다면, 그때는 지금 몇 시쯤을 살고 있는 것 같았는지? 한번 계산기를 들고 생각해 보자. 그때가 대학을 스물셋에 졸업한다 하고, 하루 중 몇 시에 해당하든지, 한국인의 평균 연령이 80세를 된다면, 80세 중 24세는 24시간 중 몇 시? 아침 7시 12분.
생각보다 무척 이르지는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잘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대학을 졸업하는 스물셋이 고작 아침 7시 12분이다. 그렇다. 아직 많이 남았다. 아침 7시 12분이 조금 늦어졌다고 하루 전체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는 너무 늦었어!"라고 탄절 지으려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기만'의 문제다. 혹시라도 포기나 좌절의 빌미를 스스로 만들어서 안 된다. 그때, 아직 이르다. 적어도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만큼은.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
Part 1. <인생시계> 중에서

대학의 최고의 낭만, 캠퍼스 커플을 말하다

한성인이 말하는 캠퍼스 커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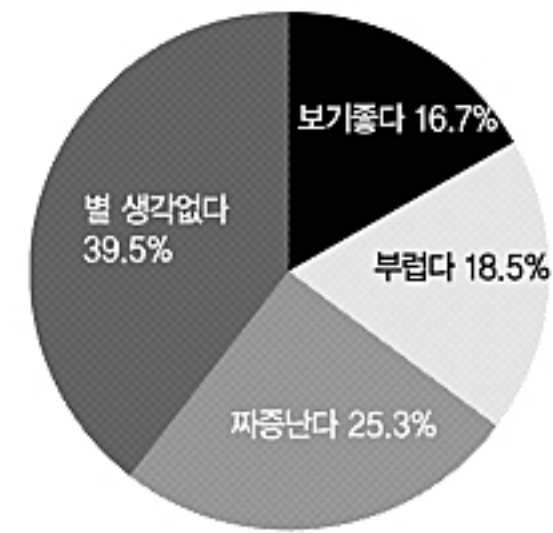
캠퍼스에 따뜻한 날씨와 만연한 꽃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봄이 찾아왔다. 더불어 한성 청춘남녀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다. 솔로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 손을 꼭 잡고 학교 곳곳에 핑크빛 기운을 뿌리고 다니는 캠퍼스커플의 모습은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이기도 한다. 대학생들의 꽃이라는 캠퍼스커플을 향한 모태솔로의 동경의 시선, 질투의 눈길 또한 많을 것이다. 혹시 당신은 CC(Campus Couple)라고 하면 일단 '비추천'부터 날리고 보는 풍조에 좋아하는 사람을 지척에 두고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CC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기자들이 직접 예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는 캠퍼스커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기자는 지난 26일 유통인구가 많은 미래관과 탐구관 앞에서 우리학교 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CC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39.5%가 △별 생각 없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짜증난다가 25.3% △부럽다가 18.5% △보기 좋다가 16.7% 순이었다. 캠퍼스커플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보였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일부 CC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모태솔로 A군은 "사이가 좋을 때도 그렇지만 특히 공공장소에서 사랑싸움을 하는 CC들을 보면 '왜 여기서 이러나'라는 생각이 절로 눈살이 찌푸러진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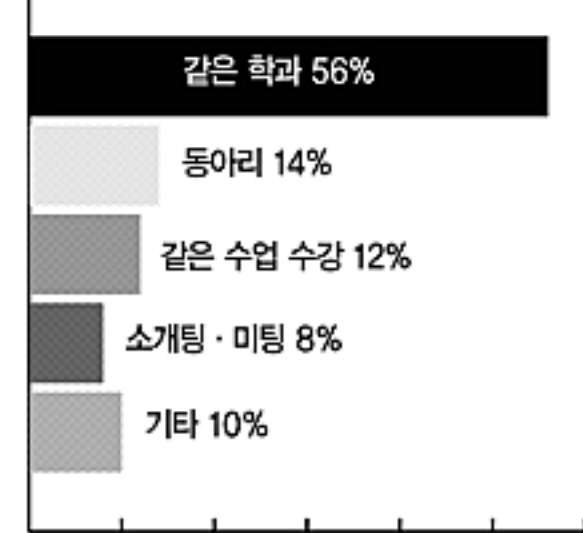
다음으로 ▲'CC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0.9%에 해당하는 50명의 인원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과거형 연애까지 포함하는 질문임을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적은 수의 학생이 CC를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50여명의 캠퍼스커플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같은 학교라는 답변이 56%로 가장 많았다. 자주 만나기 때문에 쉽게 정이 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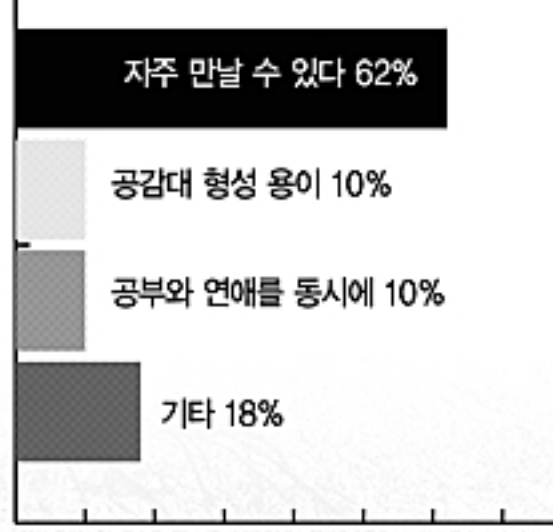
CC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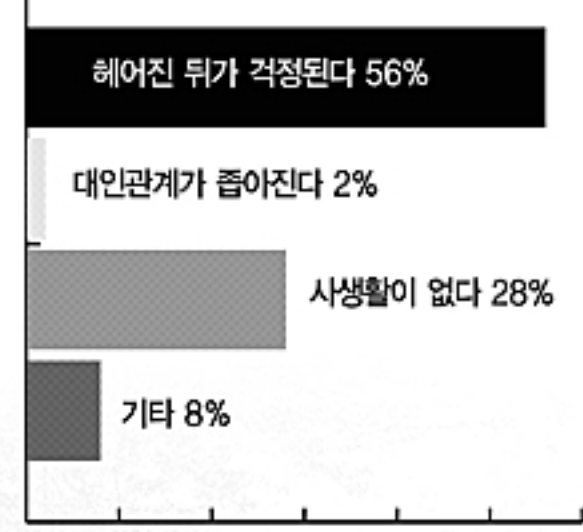
어디서 만나게 되었나요?



CC의 장점은?



CC의 단점은?



는 것일까? 다정하기로 소문난 학교커플 B군은 "함께 전공수업을 듣고 학교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다보니 어느새 연인이 되어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렇듯 캠퍼스커플의 과반수가 같은 학교에서 '눈이 맞은' 사이임을 감안하면, 세터야말로 세네기 커플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모 학교에서는

세터 직후 두 쌍의 캠퍼스커플이 탄생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동아리 14% △같은 수업 수강 12% △소개팅 · 미팅 8% △기타 10%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어서 'CC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자주 만날 수 있다가 62%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었다. 현재 알뜰당당한

연애를 하고 있는 C양은 "남자친구와 과제를 같이 하고 수업을 같이 듣는 것만으로도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다. 무엇보다도 학교에 오면 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뒤이어 캠퍼스커플들은 CC의 장점을 △공부와 연애를 동시에 10.0% △공감대 형성 용이 10.0% △기타 18.0% 순으로 꼽았다.

▲'CC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헤어진 후가 걱정된다가 56.0%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랑없이 있다 28.0% △대인관계가 좁아진다 2.0%, △기타 8.0% 순이었다. 지금 이별의 후폭풍을 겪고 있는 D양은 "전 남자친구와 싸우기라도 하면 소문이 빛보다 빠르게 퍼져서 당시에 힘들었다. 또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남자친구와 함께 보내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많이 없었다. 게다가 헤어진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와 계속 마주쳐야해서 쩔거러웠다. 심한 경우 휴학까지 고려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C양의 남자친구인 E군은 "헤어지지만 않는다면 CC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지지 않고 결혼할 생각이다"며 그들의 애정을 과시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구설수와 이별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시도해볼 것을 권한다. CC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을 뿐, 다른 연인과 다른 특색한 관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뜨겁게, 순수하게, 깊게 아끼고 사랑하는지의 문제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The blue day book』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역시 사랑이죠"

오지영 기자 guiyong@hansung.ac.kr
박현우 기자 hyunwoo@hansung.ac.kr

한성대 CC들의 명소 '낙산공원'



우리학교 캠퍼스 커플들은 부담 없이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제일 먼저 낙산공원을 꼽는다. 거리가 가깝고 학교 후문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낙산은 서울을 둘러싼 산들 중 하나로 산 모양이 낙타의 등처럼 보인다고 하여 '낙타산' 또는 '낙산'으로 불렸다. 이름의 유래처럼 낙산공원은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반복한다. 하지만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정자들과 벤치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힘들지 않게 산책을 할 수 있다.

학교에서 도로를 지나 공원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서울성곽과 마주치게 된다. 12년 전까지 폐허가 되어 있던 이 성곽은 9년 전에 복원이 완료되어 지금은 낙산공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품어주고 있다. 성벽에 기대어 산 아래 경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탁 트이는 전경에 눈이 즐겁다. 또 성벽 길을 걸다보면 만나게 되는 특이한 지붕의 집들도 인상적이다.

성곽 바깥쪽에 펼쳐진 길을 따라 걸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청룡사는 단종이 영월로 귀양가자 왕비 송씨가 평생을 머무른 단종의 명복을 빌었던 장소다. 평생토록 단종을 사랑한 왕비의 마음이 느껴진다.

창신역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소박한 초가집이 하나 보인다. 조선시대 정승 유권의

집으로 너무 남루해 비가 오면 방 안에서 우산을 받쳐서 비를 피해야했다고 해서 비우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겨우 비만 가릴 수 있는 집이라는 뜻으로 창백리였던 유권의 창립함이 그대로 전해져온다.

성벽 안쪽에는 3개의 전망 광장과 낙산정이 있다. 전망광장에 올라서서 지평선을 둘러보면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 서울을 둘러싼 산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아래로 고개를 둘러싼 창경궁의 모습과 조선의 왕들이 거닐었던 비원을 볼 수 있다. 특히 낙산정은 밤이 되면 펼쳐지는 불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공원 내에서 가장 볼거리가 많은 장소는 중앙광장이다. 이곳에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낙산의 변천을 볼 수 있는 낙산전시관과 클래식 콘서트가 열리는 무대가 자리해 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오가느라 목이 마르다면 매점에서 마실 것을 구입할 수도 있다. 무대와 전시관 주변에는 청룡의 모습을 새겨놓은 벽화와 특이한 꽃들이 심어져 있는 작은 화단이 있다. 예쁜 벽화가 그려진 이 화동 골목도 눈에 띈다. 이를 배경 삼아 함께 사진을 찍어 보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다.

낙산공원의 또 다른 장점은 대학로와 인접해 있다는 것이다. 연인이 힘이 들거나 배가 고프다면 잠시 대학로에 내려갔다 와도 좋다. 마로니에 공원에도 가까이 공원을 관람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민족미술박물관, 로복박물관 등을 대학로에 있는 박물관에 들어가 볼 수도 있다.

올라가는 길이 험잡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1호선 동대문역, 4호선 혜화역, 6호선 창신역 등 지하철역들이 곳곳에 인접해있어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혜화역에서는 도보로 10분정도 걸으면 낙산공원에 도착할 수 있고, 동대문역과 창신역에서는 03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낙산공원까지 갈 수 있다.

〈낙산공원 정보〉서울의 공원
http://parks.seoul.go.kr/park/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주간식단표

2011년 5월 2일(월요일) ~ 5월 6일(금요일)

| | 월 5/2 | 화 5/3 | 수 5/4 | 목 5/5 | 금 5/6 |
|----|---|---|---|-------|--|
| 한식 | 콩치김치조림 물만두국 개란찜 오목지무침 깍두기 | 제육볶음 (국내산)&쌈무 무채시시미국 두부조림 숙주나물무침 김치(배추:국내산) | 버섯오므라이스 &대이스 유부장국 새우튀김&샐러드 횡도 | 어린이날 | 돈육김치찌개 (국내산) 쌈밥(쌀:국내산) 소세지야채볶음 참나물무침 도시락김 김치(배추:국내산) |
| 양식 | 돈까스정식 (국내산) 아채스프 스위트콘병 &샐러드 오렌지 스틱단무지 | 볶음밥 &달다리비베구 (미국산) 팽이버섯된장국 천사채미역무침 양상추오이샐러드 과일 | 해물누룽지탕 쌈밥(쌀:국내산) 계란말이 오이부추무침 김치(배추:국내산) | 어린이날 | 튀김우동 김치말밥 춘권튀김&샐러드 짜사이채 후르츠락데일 |

◆ 위 식단은 식자재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희 학생식당에서는 쌀, 돼지고기(돈삼겹 제외), 닭고기(닭정육, 닭장각 제외), 김치(배추:국내산), 쇠고기(요산), 닭정육(미국산), 닭장각(달다리:미국산), 돈삼겹(질레), 멜기(에산을 사용함)입니다.

기자수첩

이름뿐인 보금자리 기숙사

얼마 전 한나라당이 대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 기숙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이는 기숙사를 건설하거나 대학교 주변 연립주택 등을 매입·임차해 학생들이 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내 대학의 재학생은 여림집이 27만 여명, 이 중 절반 이상인 14만 명 가량이 지방 유학생이다. 대학 기숙사가 수요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0%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집을 떠나는 12만명의 지방 유학생이 전세난의 여파로 학교 주변 외곽으로 떠밀리는 신세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한 권에서는 이러한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1가구(297명 임주)로 공급량률이 적고 분포지역이 대학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자리는 강동과 강남, 송파에 몰려있으며 강북, 관악 등 대학가 주변부에 공급되는 방은 4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학이 몰린 신촌 주변부는 공급량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세자는 강북권 대학 주변의 경우 다세대주택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변명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대학생 보금자리는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평균 약 6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또한 무주택자구의 학생으로 타 지역 출신이어야 하며 재학 중 대학교 소재지역 내 또는 인접지역 내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는다. 하지만 대학생들을 위해 나왔다는 이 보금자리는 대학가 주변부에는 많이 없는데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 내 주택만 신청가능하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취생들에게는 '꿈'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이혜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가로세로

| | | | | | |
|----|---|---|----|---|---|
| ① | | | | | |
| | | ① | | | |
| | | | | ② | |
| ③④ | | ② | | | ⑤ |
| | | | ④⑤ | | |
| ⑤ | ⑦ | | | ⑦ | ⑥ |
| | | | | | |
| | ⑥ | | | | |

• 정답지 발표
정은하 (부동산 2) 010-XXXX-1849
김혜린 (행정 2) 010-XXXX-0712
임수빈 (지정 1) 010-XXXX-9286

학과(학년):
이름:
연락처:
이번 신문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그 기사의 소감을 적어주세요.

- 가로
- ① 오 공중파 방송에서 한 방송 프로그램 실력파 가수 7명 이서 실력을 겨루는 서바이벌 방식으로 화제가 되었다.
 - ② 멕시코의 민요, 1910년부터 시작된 멕시코 혁명에서 혁명가로 불리워졌다. 스페인어로 바퀴벌레라는 뜻이다.
 - ③ 얇은 판자, 클라스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길고 평평한 활판에 구두나 장화를 붙인 것을 신고는 위를 활주하는 스포츠.
 - ④ 중국 고대의 사상이. 인을 최고의 덕이라고 보았다. 유교의 시조.
 - ⑤ 적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내태는 영이단어이며 무로 소설 네트워크 중 하나이다.
 - ⑥ 고려 말부터 이어진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
 - ⑦ 독일의 경제, 정치학자로 변증법적, 사적 유물론과 과학적 경제학의 창립자. 대표저서로 자본론이 있다.
- 세로
- ① 인도의 카스트 제도 중 최하위 계급.
 - ② 북구신화에 나오는 겨울의 여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이름의 유래이기도 하다.
 - ③ 니체의 유명 저서의 등장인물. ○○○○○○는 이렇게 말했다.
 - ④ 1990년에 결성된 메탈밴드. 대표곡으로 she's gone이 있다.
 - ⑤ 집이나 발 따위가 없는 비어 있는 땅.
 - ⑥ 프랑스의 작가 사르트르의 소설, 프랑스 대학생을 배경으로 한 청년이 느끼는 적막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묘사하고 있다.
 - ⑦ 백제의 초기도읍지

정답지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답자는 연례 후회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장인이 '한땀한땀' 빛은 전통주



▲ 작년엔 열린 제 1회 전통주 소믈리에 경연대회



▲ 지난달 22일 출시된 아이폰 앱 '길따라 술따라'

계절 따라, 손맛따라 다른 우리의 고유한 술

사람들은 취흥(醉興)이 주는 활력을 위해, 혹은 고된 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잠시 잊기 위해 술을 찾는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이니 피곤한 업무를 이겨낸 보답으로 시원하게 술 한잔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그런데 우리의 테이블에 오르는 술은 주로 소주, 맥주, 와인 등이 대부분이다. 우리들은 과연 우리 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외국은 각 나라의 전통주의 소믈리에의 활동이 활발한 반면 아직 한국의 전통주 소믈리에의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전통주의 종류는 대략 300가지로 그 기원은 각 가정에서 정성으로 빚은 술들로부터 전해진다.

『술나라이야기』(정현태 지음, 예담)에서는 "술을 빚는 사람의 지극한 정성과 노력으로 이를 좀 더 좋은 술로 만들려고 애쓴다. 그래서 우리 전통주는 자연 숙성 발효에서 오는 조화된 맛과 향기를 느낄 수 있다"고 전통주를 설명한다. 또 "술은 무기물처럼 특

정 성분만을 가진 음료로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결합시킨 과실과 물, 그리고 이들을 엮어준 증배팽이 효모의 합성체가 술이다. 단 1%에 불과한 차별화 노력이 명품이 되기도 하고 졸작이 되기도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국전통주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 단순히 식료 뿐 아니라 약을 복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러는 약재를 저장할 목적으로 술을 만들어 왔다. 술에 약재를 넣음으로써, 그 약용 성분을 우려내는 등 독특한 양조기술을 발달시켜 왔다. 인체에 해가 될까 봐 아니라 과일이나 가향, 약재를 첨가함으로써, 술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요, 장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술은 다양성과 계절성, 약리성을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 술의 특징을 설명한다.

이처럼 '빛은 술'은 까다롭고 도도하다. 온도와 습도는 물론 빛의 광도 등도 일정해야 해 술이 익어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색, 향, 맛의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다. 결합시킨 원료를 간의 원만한 공존과 화합, 순환을 통한 과정의 결

과로 술 스스로가 새로운 생명체로 바뀌어 간다.

이러한 전통주 중에서도 특히 막걸리는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선조들의 오랜 역사와 함께해온 우리 전통주 막걸리는 유산균 함유량이 높고 맛이 좋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국내 막걸리 제조업체들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검은콩, 오미자, 누룽지 등을 가미한 다양한 맛의 막걸리를 출시해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여세를 더하여 지난달 9일부터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에서는 전통주 소믈리에 경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고재윤(전통주 소믈리에협회 회장·경희대 외식경영학과교수)은 "서양에는 와인을 추천해주는 소믈리에가 있지만 한국에는 음식에 따른 전통주를 추천해줄 만한 소믈리에가 많이 없다. 외국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술을 알릴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행사는 대학생분야도 선발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그는 또 "올해 행사에도 80여 명의 대학생

이 참가했다. 이들은 우리 술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 안에 스며든 장인정신에 감동하며 우리 술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사를 할 때 탕과 찌개류가 있기 때문에 술이 없더라도 식사가 가능하지만 유럽은 텅텅한 빵이나 육류가 식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 술은 빠질 수 없는 음료다.

그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술에 대해 널리 알리고 더불어 우리나라 만의 고유한 술 문화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지난 22일, 전통주 검색 애플리케이션인 '길따라 술따라'가 출시되었다.

막걸리상표표 애플리케이션은 전통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자동으로 해당정보를 찾아준다. 또 술을 빚는 장소와 재료를 중심으로 전통주를 찾아볼 수 있고, 구글맵을 이용해 현재 위치에서 술도까지의 거리를 알려주고 인근지역의 전통주까지도 추천한다. 우리는 외국인들을 만나면 우리의 술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전통주 소비율이 80%에 달한다는 외국과는 정반대인 우리들은 먼저 '나'부터 알고 '남'을 아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혜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영화 <크랙>

동경과 질투는 한 가지에서 자란다



1930년대 영국의 외판 여학생 기숙학교 반장 디(주노 템플)가 이끄는 다이빙 팀 소녀들에게 교사 미스 G(에바 그린)는 선망의 대상이다. 미스 G의 사랑을 받고자 노력하는 소녀들, 특히 디는 미스 G로부터 높은 신임을 받으며 소녀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다. 적어도 스페인 귀족 출신 소녀 피아마가 전학 오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외모에 뛰어난 다이빙 실력, 다양한 경험까지 갖춘 피아마에게 미스 G가 빠져들면서 이들의 관계엔 균열이 생긴다.

<크랙>은 말보다 눈빛으로, 사건보다 분위기로 전달되는 영화다. (비가 많은 영국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화에서 풍겨져 나오는 건 짙조름한 비 냄새와 안개만큼이나 모호한 시적 이미지가 지루하다. <크랙>은 결코 긴박한 사건을 내세우지 않는다. 말 흐르듯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인물들의 심리를 낚을 뿐이다. 인물의 과거도 애써 알리려 하지 않는다. 대신 흔들리는 눈빛 하나, 술그머니 스티치는 행동 하나, 낮게 깔리는 배경음악으로 과거를 암시하고, 미래에 대한 복선을 심는다.

이것이 영화를 다소 지루하게 하기는 하지만 조던 스콧 감독은 질투와 동경의 감정을 능숙하게 파헤치며 재미의 강약을 조절한다. 아슬아슬하게 드러나는 동성애적인 코드와 스릴러적인 분위기도 <크랙>을 건조함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요소다. 호련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음을 얻는 소녀들의 정서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그려낸 성장담만큼이나 시리고, 진실과 거짓 사이의 공방은 <다우트>의 신경

전처럼 팽팽하다. 기숙학교의 폐쇄성을 얘기 할 때는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빌리지>의 고립된 공포감이 얼핏 비치기도 한다. 이 중 가장 오래 눈길이 머무는 건, 성장영화적인 측면이다. 소녀들의 성장기처럼 보이는 영화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루는 건, 어른인 미스 G다. 제자들에게 넓은 세상을 경험해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 말하는 미스 G는, 사실 공황장애의 비밀을 안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의 논리로 본다면, 그녀는 성장이 거세된 인물인 셈이다.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른인 '척'만 해왔던 그녀가 몸은 소녀지만 이미 어른의 경험을 지닌 피아마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녀는 자신이 지니지 못한 걸 모두 지닌 피아마를 동경하는 동시에 질투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동시에 제거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린다. 인간 자면에 흐르는 질투와 동경, 소유욕 등의 심리를 동전 뒤집듯 요리하는 연출 내용이 특징적이다.

<동상가들>로 유명한 에바 그린은 <크랙>을 통해 배우로서의 보폭을 넓힌다. 유럽 전체를 뒤져 캐스팅했다는 피아마 역의 마리아 발베르트 또한 관객이 납득할 만한 매력을 발산한다. 하지만 전면에 감정을 능숙하게 파헤치며 재미의 강약을 조절한다. 아슬아슬하게 드러나는 동성애적인 코드와 스릴러적인 분위기도 <크랙>을 건조함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요소다. 호련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음을 얻는 소녀들의 정서는 <죽은 시인의 사회>가 그려낸 성장담만큼이나 시리고, 진실과 거짓 사이의 공방은 <다우트>의 신경

글·정시우 (무베스트 기자)

Diamond Records

<Untitled(이름 없음)>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은 1968년에 야드버즈(Yardbirds)의 기타리스트였던 지미 페이지(Jimmy Page)가 로버트 플랜트(Robert Plant), 존 폴 존스(John Pole John), 존 보넘(John Bonham)을 새로운 멤버로 영입하면서 만들어진 밴드다. 때문에 초창기에는 뉴 야드버즈(New

Yardbirds)로 불렸다. 당시 지미 페이지는 자타가 공인하는 천재 기타리스트였고, 로버트 플랜트는 금속음을 자유자재로 뱉어내는 블루스 로커였다. 여기에 베이스와 피아노를 모두 연주할 수 있는 존 폴 존스의 사운드 지원과 존 보넘의 폭발력 있는 드럼이 결합되면서, 레드 제플린은 당대 최고의 연주력을 자랑하는 밴드가 되었다.

밴드의 엄청난 기량만큼 앨범들은 엄청난 판매고를 보여주었다. 모든 앨범이 플래티넘 레코드를 달성한데다가 그 중 5장의 앨범이 **다이아몬드 레코드***가 되었다. 이런 앨범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려나간 앨범이 바로 4집 앨범인 <Untitled(이름 없음)>다. '이름 없는 앨범', 'Led Zeppelin 4' 등으로 불리는 이 앨범은 미국에서만 2천300만장이 판매되었다.

이 인기의 근원지는 4번 트랙으로 수록된 'Stairway to Heaven(천국으로 가는 계

단)'이었다. 이 곡은 어쿠스틱 연주로 시작해 후반부에서 강한 일렉트릭 사운드로 폭발한다. 특히 후반부에 시작되는 지미 페이지의 기타 솔로와 로버트 플랜트의 보컬은 최고의 짜릿함을 느끼게 해준다.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조화에 대중들은 찬사를 보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제플린 숭배 현상까지 이어졌다.

물론 앨범의 다른 곡들도 주목할 만하다. 무거운 블루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Black Dog(검은 개)', 정통 리듬 앤 블루스를 들려주는 'Rock and Roll(로큰롤)', 존 폴 존스의 일렉트릭 피아노가 돋보이는 'Misty Mountain Hop(안개 낀 산꼭대기)' 등 모두가 앨범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수작이다.

위처럼 레드 제플린은 무거운 블루스에 다른 장르들을 가미해 곡을 만들었다. 때문에 레드 제플린은 딥 퍼플(Deep Purple),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와 더불어 헤비메

탈의 효시가 되는 밴드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레드 제플린이 가진 헤비메탈은 성량을 키우고 강렬한 사운드로 승부하는 현대의 헤비메탈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레드 제플린의 헤비메탈은 빌드업에 가까운 정도로 부드럽고, 서정적이다.

이들을 헤비메탈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 아래에 깔린 무겁고 웅장한 사운드였다. <Untitled>는 그런 그들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앨범이다. 때문에 이 앨범은 아직도 헤비메탈의 클래식으로 남아, 부활 등 많은 록 밴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이아몬드 레코드: 음반 판매량을 기준으로 수여하는 상. 등급 순으로 골드 레코드, 플래티넘 레코드, 더블 플래티넘 레코드, 다이아몬드 레코드가 있다.

박종민 기자 jongmin@hansung.ac.kr

사진이야기



한성대학교 학생들이 시험공부 때문에 교정에 활짝 핀 꽃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 시험공부를 뒤로 하고 잠시 나가서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이 사진으로나마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활짝 핀 꽃처럼 한성대학교 학생들의 미래도 활짝 웃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균 (행정 3)